



도자

陶磁

CERAMICS

034

고려백자 일괄

高麗白磁一括

Set of Goryeo White Porcelain Vessels

고려 10~11세기 | 높이 3.5~27.2

Goryeo Dynasty (10th - 11th Century) | H 3.5 - 27.2



고려시대의 백자주자, 백자 잔과 받침^托, 백자화형접시, 백자접시, 백자발 등이다. 태토와 유색이 옅은 황색을 띤 연질백자로 모두 문양이 없다. 주자는 나팔형의 구연에 목이 길고 둥근 몸통에 각진 어깨가 있다. 곧게 뻗은 주구^{注口}의 외면은 모나게 깎았으며, 얇고 넓적한 손잡이 윗면에 세 줄의 음각선을 새겨 굴곡이 있게 만들었는데 몸통에 접합된 부분의 아래쪽 끝이 뾰족하다. 굽다리는 밖으로 벌어졌다. 탁잔은 간결한 형태의 잔을 받침이 받치고 있는데, 접시모양의 받침은 잔이 놓이는 자리가 높게 솟아 있고, 테두리가 도드라졌다. 잔의 접지면에 내화토를 빚어서 받친 흔적이 있다. 화형접시는 바닥이 편평한 둥근 접시를 바깥면에서 눌러 여덟 부분으로 구획하고 그 윤곽을 칼로 도려내어 꽃모양을 만들었다. 접시는 완만한 곡면형^{曲面形}의 바닥 가장자리에 한 줄의 음각선을 새겼다. 발은 구연이 도톰하고 안쪽 가장자리에 음각선이 있다.

고려백자는 태토의 성질과 강도, 색상에 따라 연질과 경질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한반도에서 자기가 처음 제작된 10세기 전반 이래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13세기 중엽 경까지 청자와 함께 존재했으며 청자와 한 가마에서 굽기도 했다. 백자는 청자에 비해 그 양이 절대적으로 적지만 양식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연질백자 일괄품은 고려 초기 백자의 양상을 보여주는 드문 예이다.

A rare example of its kind, this set of soft, low-fired white porcelain vessels from the early Goryeo Dynasty consists of an ewer, a cup and saucer, a flower-shaped dish, a round dish and a bowl. The clay and glaze are both pale with a hint of yellow, and all five pieces are left undecorated.



035

청자타호
靑磁唾壺
Celadon Spittoon

고려 13세기 | 높이 9.4 입지름 16.2 밑지름 5.7
Goryeo Dynasty (13th Century) | H 9.4 Md 16.2 Bd 5.7



지금은 쓰이지 않는 낫선 그릇 타호는 나팔처럼 활짝 벌어진 깔때기 모양의 주둥이를 작은 항아리가 받치고 있는 형태로, 침이나 가래를 뱉는 그릇이다. 중국에서는 당대 이후부터 차를 마시는 풍습이 유행하면서 차 찌꺼기를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타호를 사두^{沙斗}라고 하였다.

고려 명종의 무덤인 지릉^{智陵}, 1202 또는 1255 이전에서 출토된 타호는 항아리 어깨에 구멍을 뚫고 귀^紐를 달아 술이나 기름 등 액체를 따를 수 있는 형태여서 그 기능이 다양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타호는 주로 금속기로 만들었으며, 자기로는 청자가 많고 백자타호는 경기도 용인 상반가마터에서 확인된 예가 있다. 고려 말의 성리학자 이색^{李穡} 1328 ~ 1396의 『牧隱詩藁』 27권에는 타호가 등장하는 시가 실려 있다. 타호는 이색의 시와 명종 지릉에서 출토된 점을 통해 고려시대 상류층 사람들의 일상용기였음을 알 수 있다.

痰逆粘華蓋	가래는 치올라서 화개에 들러붙고
喉張聳玉樓	목구멍은 커져라 옥루가 치솟누나
唾壺盈欲溢	가래침 그릇은 가득 차 넘치려 하고
寢席濕如流	잠자리는 축축해 물이 흐를 듯하네

이 청자타호는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형태에 문양이 없으며, 깔때기 안쪽 구연부에 한 줄의 음각선을 새겼다. 유색은 어두운 녹색조이고 굽 안쪽에 규석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귀가 달리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유색과 형태가 명종 지릉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A celadon spittoon in the form of a small jar-shaped base supporting a funnel-shaped mouth. Though a rare sight today, such receptacles were widely used in the past to collect spit or phlegm. A spittoon excavated from Jireung, the tomb of King Myeongjong of the Goryeo Dynasty, erected in 1202 upon the king's death, and later rebuilt in 1255, is presumed to have had various inbuilt devices, including a spout hole and ears on the shoulder for emptying the receptacle when full.



청자음각연화문병 靑磁陰刻蓮花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Design

고려 12~13세기 | 높이 29.6 입지름 5.3 밑지름 8.5

Goryeo Dynasty (12th - 13th Century) | H 29.6 Md 5.3 Bd 8.5



이 병의 형태는 고려시대 금속기인 청동제 병에 그 연원이 있다. 그러나 몸체의 양감이 아쉬운 듯 적절하여 세장하기 때문에 금속제 병과는 다른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고 굵은 겨우 있는 것처럼 낮아 조화롭다. 벌어진 구연과 고리, 목 중간부분 위쪽은 병의 전체 비례를 고려하여 복원하였다. 어깨에 두른 겹선에 잇대어 여의두문如意頭文을, 몸통의 세 곳에는 줄기·잎·꽃이 함께 표현된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을 음각하였다. 연화절지의 세부는 앞과 앞맥은 음각기법으로, 연꽃송이의 윤곽은 칼을 비스듬히 눌린 편절조片切彫기법으로 표현하여 차이가 있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耐火土 빛음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매병에도 이 병과 같은 장식기법으로 연화절지문을 표현하였는데, 국보 254호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과 충남 태안 해저 마도 2호선에서 인양된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이 그 예이다. 마도 2호선 인양 고려청자는 함께 출토된 목간木簡의 내용을 근거로 그 제작시기가 1208년 이전으로 알려졌다. 이 청자병 또한 동일한 양식을 지니고 있어 그 제작 시기가 12~13세기임을 알 수 있다.

The refined subtlety of the incisions on this celadon bottle from the mid-Goryeo Dynasty gives it a distinctive elegance that sets it apart from other similarly-shaped bronze bottles of its time. The bottle is incised with three equidistant designs around its body, of lotus blossoms attached to a stem with leaves. An identical design can be found on the celadon *maebyeong* (prunus vase) discovered from Mado No. 2, a sunken ship salvaged off the shores of Taean, Chungcheongnam-do Province. Based on an inscribed wooden slip retrieved from the same ship that states 1208 as the production year of the prunus vase, this celadon bottle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some time during the 12th or 13th century.



037

청자음각연화문양이호
靑磁陰刻蓮花文兩耳壺

Two-Eared Celadon Vessel with Incised Lotus Design

고려 12~13세기 | 높이 8.8 입지름 11.5 밑지름 7.0

Goryeo Dynasty (12th - 13th Century) | H 8.8 Md 11.5 Bd 7.0



넓은 어깨 양쪽에 고리 모양의 두 귀가 달린 청자항아리로 몸통 아래쪽은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며 좁아졌다. 어깨는 급하게 꺾였고 구연부가 낮아 뚜껑이 있는 항아리로蓋壺로 짐작된다. 구연부 둘레에는 여의두문如意頭文을, 몸통 네 곳에는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을 음각기법으로 장식했다. 굽은 편평하여 드러나지 않았고 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서 번조했다.

A celadon jar with two rings attached to opposing points on the shoulder. The low mouth suggests there had once been a lid. The body is incised with a design of four lotus flowers attached to their stems. The three marks on the underside are remnants of the silica spurs on which the vessel rested as it was being fired.





038

청자양각도철문방정형향로
 青磁陽刻鑿文方鼎形香爐
 Square Caldron-Shaped Celadon Incense Burner with Raised *Taotie* Motif

고려 12세기 | 높이 12.1 입지름 16.9×16.0
 Goryeo Dynasty (12th Century) | H 12.1 Md 16.9 × 16.0

고려시대 청자향로는 뚜껑 위에 동물이 장식되는 상형향로와 중국 고동기古銅器를 모방한 정형鼎形향로가 있다. 정형향로는 몸통이 둥근 원정형圓鼎形과 모난 방정형方鼎形이 있으며 문양들을 이용한 압인양각기법으로 향로의 표면에 도철문鑿文을 장식한다. 이러한 향로는 주로 도관道觀·사찰寺·신사神祠 등에서 의례용으로 사용하였고 왕실의 국가행사나 상류층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었다. 고려에서 고동기를 모방한 정형향로를 만든 것은 중국 북송 휘종 선화연간宣和年間 1119 ~ 1125에 편찬된 『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가 유입되면서 부터이다.

이 청자향로는 가로·세로·너비의 크기가 비슷한 방정형 향로이다. 몸체는 아랫변이 좁고 윗변이 조금 넓은 사다리꼴의 관 네 장을 붙여서 만들고, 마주보는 양쪽 변에는 'II'모양의 각진 손잡이를, 아랫면 네 모서리에는 장식적인 다리를 붙였다. 향로의 바깥 면 전체에 문양을 양각했는데 몸통과 모양이 같은 형틀 위에 몸통을 얹어 놓고 문양이 음각된 문양틀을 향로의 표면에 대고 눌러서 문양이 도드라지게 했다. 손잡이와 구연테두리의 외면에는 뇌문대雷文帶를 둘렀고, 몸통 바깥면은 상하로 세 단을 구획한 후 상단에는 동심원과 회오리문을, 중단에는 뇌문을 바탕으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기봉문變鳳文을, 하단에는 뇌문을 가득 채웠다. 문양의 윤곽은 뚜렷하지 않다. 다리 바닥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번조하였으며, 유색은 청색조의 비색이다.

Celadon incense burners from the Goryeo Dynasty are classified by form into two types: one the sculptural burner with animal decorations on the lid; and the other modeled after ancient Chinese square caldrons. Caldron burners such as this one, decorated with motif inspired by the Chinese mythical creature *taotie*, were mainly used during religious services, at the state events for the royal family, and in the daily lives of the nobility.

039

청자양각화문대접
靑磁陽刻花文大標

Celadon Bowl with Raised Floral Pattern

고려 12~13세기 | 높이 5.9 입지름 17.3 밑지름 5.0

Goryeo Dynasty (12th - 13th Century) | H 5.9 Md 17.3 Bd 5.0



구연이 활짝 벌어진 부드러운 느낌의 옆모습을 지닌 청자대접이다. 대접의 안쪽에는 한 송이의 만개한 황촉규가 있다. 안쪽 바닥의 작은 원을 중심으로 다섯 장의 꽃잎이 회오리모양으로 겹쳐진 형상인데 각각의 꽃잎 안에는 줄기, 잎, 꽃이 표현된 황촉규가 한 개씩 있다. 장식기법은 대접을 얹어 놓은 형태의 흙덩이로 만든 문양틀陶范을 이용하여 찍어내는 압인양각기법인데 이러한 제작방식에는 이 대접의 형태와 같은 활짝 벌어진 구연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특히 청자를 제작할 때 압인양각기법으로 문양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은 같은 시기의 금속공예에서 사용된 타출기법打出技法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고려청자에 나타난 금속기의 영향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유색은 어두운 녹색조이고, 굽 안쪽에 세 개의 규석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A celadon bowl decorated on the inner surface with a floral design in the center. The low-relief flower with five petals, one overlapping the next like the blades of a mechanical fan, was created using a press mold. The resulting effect is identical to the designs in metal work of the same period formed by hammering from the reverse side, making this bowl an important article in studying the influence of metalworking on Goryeo celadon.



청자양각모란당초문막새기와 靑磁陽刻牧丹唐草文瓦

Celadon Eaves-End Tile with Raised Peony and Scrolling Vine Patterns

고려 12세기

左 너비 20.0 길이 25.0 높이 8.2 中 지름 8.0 길이 30.0 右 너비 20.5 길이 25.7 높이 7.7

Goryeo Dynasty (12th Century)

Left W 20.0 L 25.0 H 8.2 **Center** D 8.0 L 30.0 **Right** W 20.5 L 25.7 H 7.7



지붕의 가장자리 기왓골을 마감하는 막새기와로 두 장의 암막새와 그 위에 얹히는 수막새 한 장이다. 수막새에는 활짝 핀 모란 절지문과 그 둘레에 연주문連珠文을, 암막새에는 화려한 당초문을 장식했는데 모두 문양틀로 찍는 압인양각기법을 사용하였다. 수막새 아랫면에는 격자형의 포목흔적이 있고, 등 중앙에는 기와를 고정시킬 수 있는 구멍이 뚫려있다. 암막새와 수막새의 테 두리, 수막새의 미구부분에는 유약을 닦아냈다. 유색은 청색조의 비색과 어두운 녹색조이다.

고려시대에는 전라도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 두 곳의 자기소에서 청자기와를 제작하여 개성의 궁궐로 공급하였는데, 1964년과 1965년에 이루어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7호 가마터에서 많은 양의 청자기와가 출토된 바 있다.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18권 의종 11년¹¹⁵⁷의 기록에는 “궐 밖에 궁을 지었는데, 여기에 연못을 파고 북쪽의 양이정養怡亭에 청자기와靑瓦를 덮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고려청자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는데, 이 청자막새기와들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These convex celadon tiles, designed as a finishing piece for the edge of a roof, is decorated with a low-relief pattern rendered with press molds. The hole in the middle of the central fold is for nailing the tile in place. In the Goryeo Dynasty, government kilns in Gangjin, Jeollanam-do Province, manufactured celadon roof tiles for the palaces up north in the capital Gaegyeong. Book 18 of the *History of Goryeo* on the 11th year of King Uijong's reign (1157) contains records of the construction of a pavilion using celadon tiles to cover the roof, an indication of the versatility of the Goryeo celadon.

청자나한좌상 靑磁羅漢坐像

Celadon Figurines of Seated Buddhist *Arahats*

고려 12~13세기 | 높이 24.0 바닥길이 12.7

Goryeo Dynasty (12th - 13th Century) | H 24.0 B1 12.7



왼쪽 다리를 세우고 앉아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나한상으로 살짝 들어 올린 얼굴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 이마에서 턱까지 굴곡이 없는 편평한 얼굴에 목이 짧아 다소 경직된 자세인데 검은 눈썹에 비대칭의 눈, 함몰된 입이 비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정수리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바닥에도 큰 구멍이 있어서 손으로 몸통을 빚은 후 세부 형태를 덧붙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유색은 어두운 녹색조이다.

고려시대에는 일상용기 외에 향완, 향로, 작은 종鐺 등의 여러 가지 불구佛具를 청자로 만들었다. 특히 이 나한상과 같은 상형청자는 12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전라도 강진과 부안 이외에 지방의 가마에도 보살상이 제작되었다.

Of the seven seated figurines of *arahats*, practitioners of Buddhism who have gained spiritual enlightenment, one is supporting a raised knee with his hands. His head is held high, facing slightly to the right. His face is flat from forehead to chin, his eyes asymmetrical and mouth sunken, all of which create a surreal expression. Based on the small hole on top of the head and the larger one on the underside, this figurine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by forming the shape in general from one lump and working on the details afterward.



청자상감국화모란문과형병
靑磁象嵌菊花牡丹文瓜形瓶
Melon-Shaped Celadon Vessel with Inlaid Design of Chrysanthemums and Peonies

고려 14세기 | 높이 24.6 입지름 9.4 밑지름 9.1
Goryeo Dynasty (14th Century) | H 24.6 Md 9.4 Bd 9.1



긴 목에서 나팔처럼 벌어진 구연, 참외씨의 굴곡이 있는 모양을 음각선만으로 표현한 둥근 몸통, 주름의 형태를 구부러진 곡선으로만 표현한 높은 굽다리 등 이 병의 형태는 12세기 전반 비색청자를 대표하는 인종 장릉 출토 청자소문과형병靑磁素文瓜形瓶에 그 연원이 있다. 독특한 조형성을 지닌 청자과형병은 12세기 비색청자 이래 상감청자로도 제작되었는데, 이 병은 원형의 섬세한 개성이 사라진 단순화된 형태와 회색의 태토가 그대로 드러나는 투명하고 얇은 유약, 도장으로 찍은 뒤 상감을 한 흐트러진 문양 등 고려 후기의 상감청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몸통의 네 구획에는 학과 함께 국화절지문과 모란절지문을 교대로 흑백상감하였으며, 한 곳의 모란절지문 왼쪽 상단에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文표(?)’를 백상감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Celadon melon-shaped bottles were made plain in shades of jade green in the 12th century, and later with inlaid decorations. The simplicity of shape, the scattered arrangement of the inlaid designs, and the translucent glaze are all characteristic of inlaid celadon of the late Goryeo Dynasty.



043

청자상감국화문화형탁잔

青磁象嵌菊花文花形托盞

Flower-Shaped Celadon Cup and Stand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5.9 입지름 17.3 밑지름 5.0

Goryeo Dynasty (13th Century) | H 5.9 Md 17.3 Bd 5.0



탁잔托盞은 잔과 높은 굽이 달린 접시 형태의 받침인 잔탁盞托이 세트를 이룬 기종이다. 중국에서는 8세기 후반 唐나라 때부터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자기를 처음 제작한 10세기 전반부터 청자로 제작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분청사기와 백자로도 만들었다. 또 중국과 한국 모두 자기 이외에 금속기金屬器와 칠기漆器 탁잔을 함께 사용하였다. 탁잔의 용도는 다기茶具 또는 주기酒器인데, 북송대의 학자인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는 술을 마실 때에 주완注碗과 함께 ‘반잔盤盞’이 사용된다는 기록이 있다. 또 북송 휘종의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궁徐兢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1123 ~ 1124』에서 “盤盞之制 皆似中國 惟淺深而鉤斂 舟小而足高 以銀爲之 間以金塗 鏤花工巧 잔잔盞琰은 중국의 것과 비슷한데 다만 잔의 깊이가 더 깊고, 잔받침은 작고 굽이 높다. 은으로 만들었고, 아로 새긴 꽃은 정교하다”고 하여 고려의 금속제 반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기록과 부합하는 고려의 금속제 탁잔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은제도금탁잔銀製鍍金托盞을 비롯하여 몇 점의 전세품이 있다. 잔을 받치는 용도로 ‘잔탁’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송대 이후부터이다.

이 청자상감국화문탁잔은 잔과 받침托이 모두 꽃모양의 화형이다. 잔은 틀을 이용해 만들었고 만개하기 직전의 꽃봉오리와 같다. 받침은 중앙에 높이 솟은 잔이 놓이는 자리盞座 둘레에 연관문을 양각하였고 화형의 받침테두리를 따라 흑백의 겹선으로 윤곽선을 상감하여 꽃모양의 잔을 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잔과 받침의 구획마다 도장으로 찍은 국화꽃을 상감하였는데, 잔에는 세 송이씩 늘어선 국화를 두 줄씩 장식하였고, 받침에는 구획마다 두 송이의 국화를 상감했다. 형태와 문양 등 장식성이 강하고 화려한 탁잔으로 13세기 고려의 상감청자가 절정기에 달했을 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A flower-shaped cup and matching stand in the form of a mounted dish, both inlaid with a chrysanthemum design. The highly decorative style of the pair suggests that it dates back to the 13th century, when Goryeo inlaid celadon was at the peak of sophistication. Articles of similar form were made beginning in the early 10th century in the Goryeo Dynasty, and were later made of *buncheong* and white porcelain during the Joseon Dynasty.



044

청자철화초화문병
靑磁鐵畫草花文瓶

Celadon Bottle with Design of Scrolling Vines and Flowers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고려 12~13세기 | 높이 25.9 입지름 12.0 밑지름 8.5

Goryeo Dynasty (12th - 13th Century) | H 25.9 Md 12.0 Bd 8.5



당당한 어깨의 몸통을 낮은 안굽이 받치고 있어서 견고한 느낌을 주는 병으로 나팔같이 벌어진 구연부는 꽃잎모양이다. 이 병의 기본 형태는 작은 쟁반과 같은 구연에 길고 가는 목이 있으며 어깨가 벌어지는 고려시대 반구장경병(盤口長頸瓶)에서 찾을 수 있으나 목에 세 줄의 음각선이 있고 구연이 꽃잎 모양인 독특한 형태는 고려 인종(仁宗, 재위 1123~1146)의 장릉(長陵)에서 출토된 국보 제94호 청자소문과형병(靑磁素文瓜形瓶)과 동일하다. 병의 전면을 철화기법으로 장식했는데 구연부 윗면에는 당초문을, 목 양쪽에는 초문을, 몸통의 어깨와 하부에는 국화관문(菊花瓣文)을 두르고 그 사이에 초화문을 그렸다. 태토가 거칠어 조질(粗質)이고 유색은 녹갈색이다.

고려시대 12세기 이래 철화청자는 강진과 부안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많은 양이 제작되었다. 철화청자에도 맑은 녹색 또는 청색조의 비색을 띤 것이 있으나 대부분은 태토가 거칠고 유색이 녹갈색을 띠는 조질이다. 기종은 장경병, 매병, 장고, 주자 등에 국한된 경향이 있는데 청자철화초화문병은 이러한 고려시대 철화청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The long neck and the disc-shaped lip of this bottle were common to numerous celadon vessels of the Goryeo Dynasty. Its outer surface is painted with a design of scrolling vines and chrysanthemums in underglaze iron-brown. Since the 12th century, a large quantity of celadon wares we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at the kilns in Gangjin and Buan, as well as other parts of the kingdom. While some were made in translucent shades of green or blue, most were of a lower quality, their texture rough and the glaze greenish brown.



분청사기상감우점학문합
粉靑沙器象嵌雨點鶴文盒

Lidded *Buncheong* Bowl with Inlaid Design of Rain Dots and Cranes

조선 15세기

전체높이 13.3 | 뚜껑 높이 4.4 | 지름 17.2 | 합 높이 6.9 | 입지름 16.0 | 밑지름 7.7

Joseon Dynasty (15th Century)

H 13.3 | Lid H 4.4 | D 17.2 | Bowl H 6.9 | Md 16.0 | Bd 7.7



합은 뚜껑과 몸체가 일체를 이루는 기종器種이다. 자기제합磁器製合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으나 시기에 따라 세부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합은 발鉢 형태의 몸체에 뚜껑이 구연을 덮는 형식이고, 이 합과 같이 뚜껑과 합이 맞물리는 형식으로 측면이 일직선에 가까운 형태는 고려청자의 여운으로 15세기에 제작된 분청사기 합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합의 몸체와 뚜껑 전면에 여러 개의 문양대를 구획하고 흑백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을 사용하여 빈틈이 없이 장식하였다. 뚜껑 윗면의 중심에는 여섯 잎의 연관문으로 구성된 만개한 화문花文을, 약하게 경사진 그 둘레에는 중국 원元 청화백자에 장식된 것과 같은 형태의 여의두문如意頭文과 학鶴을 각각 네 개씩 교대로 배치하고 바탕을 뾰뾰한 우점문雨點文으로 채웠다. 측면에는 만자문대卍字文帶를 둘렀다. 몸체의 측면에는 마름모를 상감한 문양대와 날개의 도장으로 국화문을 채운 문양대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15세기 초반인 1430년 이전의 분청사기에는 고려 말 삼강청자의 여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예가 많다. 이 합은 기형, 문양의 종류, 시문방식과 등에서 고려 말 ~ 조선 초 분청사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예이다.

Numerous pieces of *buncheong* ware from the early 15th century are strongly reminiscent of inlaid celadon from the late Goryeo period. This lidded bowl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of *buncheong* ware produced during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in terms of shape, as well as design and decorative technique, visible on the entire outer surface of this bowl, filled with densely decorated sections of inlaid and stamped designs.





046

분청사기상감어문매병
粉靑沙器象嵌魚文梅瓶

Buncheong Maebyeong with Inlaid Fish Design

조선 15세기 | 높이 26.0 입지름 5.0 밑지름 9.1

Joseon Dynasty (15th Century) | H 26.0 Md 5.0 Bd 9.1



어깨가 당당한 매병이다. 목이 몸통에서 약간 솟아 있고, 전체 비례에서 아래에 처져 있는 허리는 잘록하다. 매병梅瓶은 고려시대에 청자로도 많이 만들어져 꿀이나 술 등의 액체를 담는데 사용하였으며 당시에는 ‘준甈’이라고 하였다. 이 매병은 작은쟁반모양의 각진 구연이 몸통에 바짝 붙어 있는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매병과는 차이가 있으나 조선 초기 분청사기의 형태와 문양이 고려시대 청자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어깨에는 목을 따라 연관문蓮瓣文을 둘렀고, 허리에는 간략한 파초문芭蕉文을 장식했다. 양감이 있는 몸통에는 위쪽에 있는 작은 새들 아래로 크기가 다른 물고기와 나뭇잎을 표현했다. 고려 말 청자에서 흑백상감으로 비교적 섬세하게 표현되던 물고기는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작은 부분이 생략된 채 다른 공간의 생물인 새와 한 공간에 배치되었다. 마치 나뭇잎이 떠다니는 커다란 물고기가 사는 연못을 새들이 들여다보는 장면과 같다. 회색태토가 그대로 드러나는 투명한 유약을 얇게 입혔으며, 안으로 숨어 있는 굽다리의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In the Goryeo Dynasty, numerous vessels of this shape, referred to as *maebyeong*, or prunus vase, were made in celadon and used for storing liquids such as honey or liquor. Although not the typical prunus vase from Goryeo, this *maebyeong* shows the influence of Goryeo celadon on the shape and decorations of *buncheong* ware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is vase, however, is the inlaid design of creatures of the sky and the sea within one space. Below a row of small birds at the top are fish and leaves of varying sizes, as if the birds are looking at the fish swimming in a pond, on the surface of which float scattered leaves, like an illustration for a children's book.

분청사기인화승림문창원장흥고명접시
粉靑沙器印花繩簾文昌元長興庫銘標匙

Buncheong Plate with Stamped Pattern of Straw Ropes and Inscriptions of
“昌元 (Changwon)” and “長興庫 (Office of Supplies)”

조선 15세기 | 높이 3.2 입지름 16.4 밑지름 5.9
Joseon Dynasty (15th Century) | H 3.2 Md 16.4 Bd 5.9



접시의 안쪽 중심 원 안에 경상도 창원昌原의 오기誤記인 ‘昌元’을 종서縱書로 백상감하였다. 이 명문을 중심으로 두 단으로 구획된 문양대 안을 집단연권형集團連圈形의 승림문繩簾文을 인화기법으로 채우고 구연부의 안팎에는 상감기법으로 초문대草文帶를 둘렀다. 접시의 뒷면에는 ‘장長’, ‘흥興’, ‘고庫’ 세 글자를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바탕에는 주름진 파상문波狀文을 역시 인화기법으로 채웠다.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줄임말인 분청사기粉靑沙器는 고려시대 말기의 상감청자에서 비롯되어 조선 전기인 15세기 세종연간^{1418 ~ 1450}에 절정에 달하였다. 태종 ~ 세종연간에 시행된 현물現物의 세금을 거두는 공납제貢納制의 체제 안에서 분청사기도 공물貢物의 한 종류로 제작되었다. 분청사기의 장식기법인 인화기법과 그릇에 표기된 지역의 이름地名, 관청의 이름官司名, 장인의 이름匠名 등 여러 가지 명문銘文은 이러한 공납용貢納用 자기의 특징이다.

이 접시는 사옹원司饔院 사기소沙器所의 설치가 완료된 1469년 이전에 경상도 창원도호부昌原都護府에 속한 자기소磁器所에서 제작하여 한성부漢城府에 위치한 관청인 장흥고長興庫에 상납한 공납용 자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1424 ~ 1432년 사이의 상황을 기록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는 “慶尙道 晉州牧 昌原都護府：磁器所一，在府北山北村里。下品. 경상도 진주목 창원도호부慶尙道 晉州牧 昌原都護府에 하품의 자기소 한 곳이 부의 북쪽 산북촌리에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This *buncheong* plate is marked in the center with the characters “昌元,” a homonym of the intended “昌原 (Changwon),” the name of the county in Gyeongsangnam-do Province where the plate was produced. The surface on the reverse side bears an inscription of the three characters, “長興庫,” or Office of Supplies, where the plate was sent as a tax payment.

The term “*buncheong*” is a contraction of “*bunjanghoecheong*,” which refers to the process of adding a white slip before the glaze, and the grayish green hue that results. The technique was developed from late-Goryeo inlaid celadon and *buncheong* ware was widely produced in 15th century.

During the reigns of King Taejong and King Sejong, under whom the finest buncheongware was made, *buncheong* ware was one of the items collected as tax, as evidenced by the inscriptions on each work, of the names of the county of origin, the craftsmen and the collecting government office.



분청사기인화승렴문의령인수부명대접 粉靑沙器印花繩簾文宜寧仁壽府銘大椀

Buncheong Bowl with Stamped Pattern of Straw Ropes and Inscriptions of “宜寧 (Uiryeong)” and “仁壽府 (Office of the Crown Prince)”

조선 15세기 | 높이 6.0 입지름 18.3 밑지름 5.9
Joseon Dynasty (15th Century) | H 6.0 Md 18.3 Bd 5.9



높이가 낮고, 입지름이 시원하게 넓어 형태가 접시에 가까운 대접이다. 굽 안쪽을 제외하고 그릇의 표면 전체에 작은 구슬이 연달아 늘어선 것 같은 집단연권형集團連圈形의 승렴문繩簾文을 인화기법으로 빼곡하게 채웠다. 대접 안쪽 바닥에는 원 안에 세로 방향으로 지명地名인 ‘宜寧’이, 뒷면에는 세 개의 원圃안에 각각 ‘仁’, ‘壽’, ‘府’ 세 글자가 표기되어 있어 이 대접이 경상도 의령지역에서 생산되어 인수부仁壽府에 상납된 공납자기貢納磁器임을 알 수 있다. 인수부는 궁궐 안에 거주하는 왕실 구성원에 따라 한 시적으로 설치한 왕실부王室府의 하나로 1400년에 이방원李芳遠, 훗날의 태종의 세자부로 설치되었다가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1418년에는 상왕부로 바뀌었고 1464년 이전에 혁파되었다. 조선 전기의 국가재정은 지방의 토산물土産物을 현물로 징수하는 조세운영체제인 공납제貢納制를 통해 확보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원稅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세를 균등하게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가 편찬되었다. 이 지리지에는 공물의 한 종류인 자기의 생산처가 자기소磁器所로 기록되었는데, 경상도 진주목 의령현에는 하품의 자기소 한 곳이 기재되었다.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宜寧縣：磁器所一，在本縣東元堂里。下品。

공납용 자기의 종류는 분청사기, 청자, 백자 등이 있으나 청자와 백자의 양은 매우 적고 절대다수가 분청사기이다. 이러한 공납용 분청사기는 규격화된 문양구도를 인화기법으로 장식하는 양식樣式과 생산지인 지명地名, 제작자인 장인의 이름匠名 그리고 그릇의 수납처이자 사용처인 관청의 이름官司名 등이 표기된 것이 특징이며 세종연간¹⁴¹⁸ ~ 1450에 절정에 달하였다. 이 대접은 1464년 이전에 경상도 의령지역의 자기소에서 제작하여 인수부에 상납한 공납용 자기로, 국가 재정운영이 현물납 중심으로 이루어진 15세기 전반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Almost as shallow as a dish, this bowl is densely covered on both the inner and outer surfaces with a stamped pattern of aligned rows of tiny beads. Inscribed on the underside enclosed within the base ring are the characters “宜寧 (Uiryeong),” the name of the county in Gyeongsangbuk-do Province where the bowl was made. The characters “仁壽府” inscribed on the outer surface on three equidistant points refer to the Office of the Crown Prince, to which the bowl was supplied as a tax payment. This reflects how, in the first half of the 15th century, the finances of the Joseon Dynasty relied heavily upon in-kind tax payments.



분청사기조화박지모란잎문병
粉靑沙器彫花剝地牧丹葉文瓶
Buncheong Bottle with Sgraffito Peony Leaf Design

조선 15세기 | 높이 30.0 입지름 6.5 밑지름 7.9
Joseon Dynasty (15th Century) | H 30.0 Md 6.5 Bd 7.9



분청사기의 상감·인화·박지·조화·철화·귀얄·덤병 등 다양한 장식기법은 회청색의 태토 위에 백토를 입히는 제작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박지剝地기법과 조화彫花기법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분청사기조화박지모란잎문병粉靑沙器彫花剝地牧丹葉文瓶은 이러한 분청사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병의 구연에서 몸통 아랫부분까지 흰색의 분장토를 넉넉하게 발랐다. 어깨, 몸통, 굽은 음각선을 새겨 구분하였고 어깨에는 연관문蓮攢文을, 몸통에는 넝쿨처럼 휘돌아가는 모란잎을 시원하게 장식했다. 문양의 윤곽은 분장토위에 음각선을 새긴 조화기법彫花技法이고, 문양의 바탕은 분장토를 긁어 낸 박지기법剝地技法이다. 면이 넓은 모란잎은 서로 중첩되어 두꺼운 분장토와 함께 풍성한 느낌을 자아내며, 분장토를 긁어내 드러난 태토의 어두운 색감과 대비로 한결 생생하다. 이러한 모란잎은 대접이나 접시보다는 향아리, 병, 대발大鉢과 같이 크기가 커서 넓은 면적을 지닌 그릇에 주로 장식되었다. 병의 몸통은 양감이 적절해서 전체 모습이 유려하고, 몸통 아래쪽과 굽 사이가 계단처럼 꺾여 이채롭다. 조선시대 전기인 15세기에서 16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분청사기는 동일한 형태와 문양일지라도 제작된 시기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법으로 표현한 특징이 있다. 이 병처럼 굽을 제외한 병의 표면에 분장토를 두껍게 입히고, 모란잎을 조화 및 박지기법으로 표현한 것은 15세기 중엽 경에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의 양식인데 이러한 분청사기에는 인화문분청사기에 비해 그릇을 만든 장인匠人의 미감과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Buncheong ware is characterized by a wide variety of decorative techniques involv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white slip on clay. The entire surface of this bottle is covered with thick white slip, a representative feature of *buncheong* ware. The dark background created by the clay underneath, produces a vivid contrast to the thick white slip. The thick layer of slip and sgraffito peony leaf design along with the application of incising techniques are both characteristic of the *buncheong* ware made in Jeolla-do Province in the mid-15th century.



분청사기조화박지모란잎문편병
粉靑沙器彫花剝地牧丹葉文扁瓶
Buncheong Flask with Sgraffito Peony Design

조선 15세기 | 높이 22.0 입지름 4.5 밑지름 8.4
Joseon Dynasty (15th Century) | H 22.0 Md 4.5 Bd 8.4



편병扁瓶은 몸통에 편평한 면面이 있어서 옆모습이 날씬한 형태의 병으로 조선시대에 분청사기와 백자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 편병은 몸통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둥근 맛이 있어서 부정형의 덩어리처럼 보인다. 몸통은 아래쪽이 약간 넓고 굽다리가 밖으로 벌어져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이러한 분청사기편병의 두드러진 양감은 백자편병과는 다른 제작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청사기편병은 물레로 만든 둥글고 긴 병이 적당한 굳기로 건조되었을 때 몸통을 두드려서 면을 만들기 때문에 몸통의 넓은 양쪽 면과 좁은 옆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또 구연에서 굽까지 병 전체가 물레위에 만들어지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어깨와 병목의 이음새도 부드러운 곡면으로 이어진다. 이에 비해 백자편병은 윗면이 불룩한 넓고 납작한 몸통을 만든 다음 아랫면을 윗면과 같은 형태로 깎아낸다. 이렇게 만든 몸통에 따로 만든 목과 굽을 접합하는 조합형이기 때문에 일체형의 분청사기편병에 비해 전체 윤곽이 뚜렷하다.

이 편병은 몸통 양면 가득히 모란잎을 박지剝地부분이 없이 조화기법인 음각선만으로 표현했다. 모란잎의 윤곽은 뾰족하고 둥글어 몸통의 형태와 조화롭고, 병 어깨에 두른 연관문蓮瓣文은 박지기법으로 장식했다. 조화기법과 박지기법으로 모란꽃과 잎을 또는 잎葉만을 표현한 분청사기는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의 양식적인 특징이다. 이 편병은 제작지역에 따라 양식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15세기 분청사기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This flask is in the shape of a flattened spherical vessel, as if it had been pressed against a wall. In the Joseon Dynasty, similarly thin flasks were made in buncheong and white porcelain. The surface of this flask is uneven, and can make it look like a fresh lump of clay rather than a vessel. The unevenness is caused by the process of beating the semi-dried preliminary version of the flask into its flattened shape.



분청사기조화모란잎문발
粉靑沙器彫花牧丹葉文鉢

Buncheong Bowl with Incised Peony Leaf Design

조선 15세기 | 높이 17.0 입지름 26.6 밑지름 10.1

Joseon Dynasty (15th Century) | H 17.0 Md 26.6 Bd 10.1



입지름口徑이 26cm에 이르는 큰 발鉢이다. 양감이 넉넉한 몸체는 마치 등근 공을 반으로 자른듯한데 옆으로 반듯하게 꺾여 바라진 구연부와 몸체에 비해 작고 높은 굽을 갖추어 모습이 당당하다. 굽과 가까운 몸체의 아래쪽은 계단처럼 꺾여 도드라졌다. 발의 안쪽과 바깥 면에 분장토가 얇고, 귀얄자국은 단정하여 소박하다. 몸체 안쪽에는 바닥에 새긴 원에 접하여 양쪽에서 활짝 피어오른 모란잎을 대칭구도로 표현했는데 그 중심에는 채 펼쳐지지 않은 새순이 있다. 바깥 면에는 형태가 해체된 추상적인 느낌의 모란잎을 간결하게 스케치하듯이 표현하였는데 단숨에 새긴 것 같은 구불거리는 곡선에 생기가 있다.

모란은 자기의 문양으로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분청사기 및 청화백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표현되었다. 고려시대 상감청자에는 꽃과 잎, 줄기를 모두 모두 표현한 절지문折枝文의 형태로, 조선시대 분청사기에는 꽃송이 없이 잎만을 풍성하게 장식하기도 했다. 대접이나 접시에 비해 크기가 큰 장군, 병, 편, 항아리 등에 많이 표현되었다.

The mounted hemispheric body and a thin flaring lip complete the majestic grandeur of this large bowl. The thin layer of white slip and even brushstrokes demonstrate a minimal aesthetic. The inner surface is adorned with two closed peony buds on opposing sides, from which unfurls an abundance of leaves.





052

분청사기철화삼엽문장군

粉靑沙器鐵畫三葉文獐本

Barrel-Shaped *Buncheong* Bottle with Three-Leaf Design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조선 15세기 | 높이 17.4 입지름 5.0 밑지름 10.9×7.8

Joseon Dynasty (15th Century) | H 17.4 Md 5.0 Bd 10.9 × 7.8



장군은 삼국시대부터 토기로 제작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분청사기와 백자로도 제작되었다. 장군의 한자표기는 ‘獐本’이며 그 용도와 형태는 『세종실록世宗實錄』 27권 7년 2월 15일의 기사에서 “獐本, 酒器, 形如鼗鼓, 腹有口, 俗號獐本. 장본獐本은 술그릇이다. 형상이 도고鼗鼓와 같고, 배에 주둥이가 있는데 속칭 장본이라 한다.”라고 설명한데서 알 수 있다. 즉 장군의 용도는 술을 담는 것이며 그 형태는 북장고과 같다는 것이다. 분청사기철화삼엽문장군粉靑沙器鐵畫三葉文獐本の 형태는 『세종실록』의 장본에 대한 기록과 일치한다.

이 장군은 옆으로 길쭉한 장타원형長橢圓形의 몸통에 활짝 벌어진 구연이 달린 목과 굽을 따로 만들어 붙였다. 목은 몸통의 중심에서 한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서 술과 같은 액체를 따를 때에 목 아래에 손을 대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고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몸통 마구리의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물레성형 후에 굽짜기를 하였다. 몸통과 목, 굽다리까지 백색의 분장토를 귀얄로 입히고 철사안료鐵砂顔料로 문양을 그렸다. 철화문양은 몸통 양 옆에는 두 개의 줄기가 교차한 삼엽문을, 어깨에는 목에서 양쪽으로 펼쳐진 두 겹의 연관문을 그렸다.

철화분청사기는 15세기 중·후반 경에 충청도 공주 계룡산 일대와 전라도 무안지역에서 제작되었는데 이 장군의 문양처럼 주저함이 없는 빠른 속도감을 지닌 유연한 필치는 충청도 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이다. 흑갈색의 철화문양은 거침없는 붓질로 드문드문 짙은 속살이 드러나게 바른 분장토의 하얀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지만 긴장감이 없이 조화롭다. 이와 함께 장군 몸통 마구리의 모양이 다른 점, 정중앙을 벗어난 목의 위치 등은 정밀하지 않으나 결코 미숙하지 않은 분청사기 특유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Janggun, or barrel-shaped horizontal bottles were made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initially in earthenware, and later during the Joseon Dynasty, also in *buncheong* and white porcelain. The body, mouth and foot of this bottle were all made separately and assembled afterward. The mouth is set slightly off-center to make it easier to support the neck with one hand when pouring the liquid such as alcohol. The entire surface was first coated with a white slip, then decorated with a three-leaved plant painted in iron-brown.

분청사기덤병문합 粉靑沙器粉粧文盒

Slip-Dipped *Buncheong* Bowl with Lid

조선 15세기 후반 ~ 16세기 초

전체높이 16.5 | 뚜껑 지름 14.5 높이 6.6 | 합 높이 12.0 입지름 12.3 밑지름 8.3

Joseon Dynasty (Late 15th Century - Early 16th Century)

H 16.5 | Lid D 14.5 H 6.6 | Bowl H 12.0 Md 12.3 Bd 8.3



몸체와 뚜껑이 한 조를 이룬 합으로, 뚜껑의 윗면 중앙에 꼭지가 붙어 있고 뚜껑이 몸체의 구연口緣을 덮는 형태이다. 몸체는 따로 제작하여 붙인 굽다리와 몸통으로 구분된다. 뚜껑 : 몸통 : 굽의 비율로 볼 때 굽이 매우 높으나 아래로 내려가며 벌어져 안정감이 있다. 굽 안쪽을 제외한 합 의 표면 전체에 백토白土를 입혀 분장粉粧을 하였는데 뚜껑과 몸체의 안쪽은 분장이 단정하여 마치 백자처럼 보인다. 합 의 바깥면은 분장의 두께가 얇고 농담濃淡이 있어서 거친 태토와 그릇의 표면을 깎아 낸 칼자국이 드러나 거칠지만 활달한 표면 질감이 드러났다.

조선시대 전기의 분청사기는 1469년에 그 설치가 완료된 사용원司養院 사기소沙器所인 관요官窯에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백자를 전담하여 생산할 때까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양이 제작되었다. 이들 분청사기는 꽃 모양의 도장을 찍어서 장식한 인화기법印花技法이 특징이다. 그러나 1450년대부터 백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화백자靑畵白磁가 제작되는 등 변화된 백자의 위상은 분청사기의 양식樣式에도 영향을 끼쳤다. 즉 분청사기의 장식기법이 인화기법에서 귀얄풀과 같은 식물의 줄기로 만들어 백토를 바를 때 사용하는 붓 또는 덩병기법으로 바뀌어 그릇의 표면이 마치 백자처럼 보이게 되었다.

분청사기덤병문합은 15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한 조선 전기 도자기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꼭지가 달린 뚜껑과 몸체에 비례해 매우 높은 굽은 당시에 자기와 함께 사용된 동기銅器나 유기鑪器 등의 금속기金屬器를 필요에 따라 자기로 변안할 때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이다.

This bowl is equipped with a deep lid that conceals the top rim of the main body. Its finish was achieved by being completely dipped in white slip, resulting in inner surfaces that strongly resemble white porcelain. This similarity clearly reflects the transition that took place in Joseon ceramics, beginning in the mid-15th century, whereby white porcelain replaced the earlier *buncheong* ware.



054

백자상준
白磁象樽
Elephant-Shaped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조선 16세기 | 높이 17.2 길이 28.8 너비 16.3
Joseon Dynasty (16th Century) | H 17.2 L 28.8 W 16.3



둥근 몸통에 긴 코가 달린 얼굴과 네 개의 짧은 다리를 붙인 상준象樽이다. 코끼리를 형상화한 상준은 종묘대제에서 후주後酒 흰 빛의 술인 양제를 담는 예기禮器이다. 15세기 전반의 상준은 원통형의 깊은 발鉢 표면에 코끼리 모양을 표현한 것이었으나 조선 시대 국가전례國家典禮의 전범으로 의례의 준행을 위해 원칙과 절차를 밝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간행된 1474년 이후에는 이 백자상준과 같은 상형象形으로 바뀐다. 몸통은 장군塼本과 같이 물레로 만들어 한쪽 마구리는 볼록하고 다른 한쪽은 반듯하다. 등에는 가운데에 뚫린 네모난 구멍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긴 사다리와 같은 여덟 개의 띠를 음각했다. 태토는 입자가 거친 편이고 유약은 맑고 푸른색이 감돈다. 편 평한 마구리 바닥에 모래빛음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This ritual vessel called *sangjun*, or elephant jar, is made in the form of an elephant with an oval body, a tiny head, a long nose and four short legs. Such vessels were used to contain white liquor during ancestral rites held for deceased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t the Royal Shrine. In the early 15th century, the elephants were drawn on the surface of a deep cylindrical bowl.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Five Rites of the State* in 1474, the entire vessel was shaped to resemble an elephant. Like the barrel-shaped bottles from the same period called *janggun*, the ovoid body of this vessel was made by spinning clay on a wheel. As a result, the front of the elephant's body is curved while the rear end is flat. Carved on the elephant's back are eight equidistant ladders that radiate from the square hole for pouring liquid.



정면



후면



상면



측면

백자유개호
白磁有蓋壺
Lidded White Porcelain Jars

조선 15 ~ 16세기
좌 전체높이 19.1 | 뚜껑 높이 5.1 지름 9.9 | 항아리 높이 15.0 입지름 8.3 밑지름 10.2
우 전체높이 14.8 | 뚜껑 높이 4.0 지름 8.0 | 항아리 높이 11.8 입지름 7.0 밑지름 7.0
Joseon Dynasty (15th - 16th Century)
Left H 19.1 | Lid H 5.1 D 9.9 | Jar H 15.0 Md 8.3 Bd 10.2
Right H 14.8 | Lid H 4.0 D 8.0 | Jar H 11.8 Md 7.0 Bd 7.0



뚜껑이 있는 두 점의 백자항아리로 크기가 다르다. 두 점 모두 보주형寶珠形의 꼭지가 달린 뚜껑과 세트인데 뚜껑 윗면은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가면서 낮아지는 계단모양의 단이 있다. 뚜껑은 구연을 덮는 형태인데 윤곽이 뚜렷하여 단정함 느낌을 준다. 몸통은 어깨부분이 가장 넓어 의젓한데 큰 항아리에 비해 작은 항아리가 아래로 내려오며 급격하게 좁아졌다. 구연은 목이 없이 밖으로 벌어졌는데 끝이 도톰하다. 절제된 느낌의 형태와 차분한 회색빛의 태도가 세련되지는 않았으나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 전기의 백자이다. 항아리 몸체와 작은 항아리의 뚜껑은 접지면에 모래를 받쳤고, 큰 항아리의 뚜껑은 안쪽면에 크기가 작은 열 두 개의 태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조했음을 알 수 있다.

These lidded white porcelain jars are different in size, but each has a pointed *cintamani*-shaped knob at the center of its lid. Under the knob is a three-tiered elevation that forms the body of the lid, which covers the mouth of the jar, and has a sharp outline, giving an impression of neatness. The bulging shoulders are the broadest part of the body, creating an air of dignity, and the flaring lip is plump at the end. The minimalist shape and subdued gray tint add to the elegance of these white porcelain vessel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056

백자대호
白磁大壺

White Porcelain Jar

조선 17세기 후반 ~ 18세기 전반 | 높이 51.4 입지름 20.9 밑지름 19.5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113호

Joseon Dynasty (Late 17th Century - Early 18th Century) | H 51.4 Md 20.9 Bd 19.5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13 of Busan Metropolitan City



이 항아리의 큰 키와 당당한 어깨는 보는 이를 압도한다. 조선시대 후기의 대형 백자항아리 중에서도 50cm가 넘는 것은 매우 드문데 이 항아리는 구연부가 곧게 직립한 다른 항아리들과는 달리 몸통에 납작하게 붙어서 이채롭다. 구연의 바깥면은 직립했으나 안쪽면은 항아리의 중심을 향해 경사진 형태이다. 몸통은 상하를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 형태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었다. 굽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안굽인데 이는 납작한 구연과 함께 항아리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토록 커다란 항아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양이 없이 그대로 드러난 차분한 태토의 색감은 여백이 주는 미감을 고조시킨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이상형인 군자君子의 풍모가 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This tall jar with a broad shoulder has an impressive presence. Few examples of white porcelain jars of over 50cm in height remain from the late Joseon period. Unlike most jars with straight, elongated necks, a thin ring terminates the top of the body. The slight asymmetry is a result of making the upper and lower halves separately and joining them afterward. Despite its size the plain, gentle shade of white heightens the sense of an aesthetic void, and symbolizes the ideal virtues of Joseon's neo-Confucian literati.



057

백자주자
白磁注子
White Porcelain Ewer

조선 19세기 | 높이 15.2 입지름 8.0 밑지름 10.3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15.2 Md 8.0 Bd 10.3

몸통이 작은 항아리 모양인 주자이다. 물을 따르는 육각六角의 물대出水口는 손잡이 윗면의 각진 형태와 함께 야무진 인상을 준다. 이와 함께 뚜껑을 감싸고 있는 곧게 벌어진 테두리의 모습은 이 주자가 금속제 주자를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음을 알려준다. 특히 손잡이 양쪽에 곧게 세워져 붙인 마감판의 꽃처럼 보이는 도드라진 연주문連珠文은 얇은 금속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드려서 장식하는 금속공예의 기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주자는 금속제 주자와는 달리 간결하고 절제된 형태에도 날카롭지 않아 백자가 지니는 부드러움을 지녔다. 손잡이 뒤쪽 마감판의 모서리가 파손된 것이 아쉽다. 주자의 몸통 안쪽부분 전체까지 푸른색이 감도는 유약을 입혔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This ewer with a small jar-shaped body appears to have been modeled after a metal prototype, as evidenced by the hexagonal spout, the angular handle and the tall lip that rises above the lid. Despite its minimalist shape, this pot retains the inherent grace of white porcelain, unlike the austere aesthetic of its metal counterparts.





058

백자팔각제기

白磁八角祭器

White Porcelain Octagonal Ritual Vessel

조선 19세기 | 높이 12.5 입지름 20.3 밑지름 9.2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12.5 Md 20.3 Bd 9.2



의례용기인 제기는 본래 금속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속 원료의 수급 상황과 맞물려 조선시대 내내 일부 기종이 자기로 변안되었다. 도자제기는 제기도설祭器圖說에 부합하는 형태와 약간의 변형이 가해진 일상용기 형태 두 가지가 있다. 이 백자제기는 일상용기의 발鉢에 부분적인 변형이 가해진 경우이다.

몸통은 원형이지만 넓게 벌어진 구연부와 높은 굽다리의 외면은 팔각이다. 안쪽으로 흰 호형弧形의 구연부 가장자리를 따라 한 줄 음각선을 새겼고, 팔각의 굽다리 면에는 동그란 구멍과 안상眼象모양을 번갈아가며 뚫었다. 굽다리는 안쪽은 원형이고 외면은 팔각인데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다. 깨끗한 태토에 푸른 색감이 감도는 맑은 유약을 입혔다.

Ritual vessels were originally made of metal, but due to the rising demand of metal for other products, certain types were made in porcelain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is porcelain vessel takes the form of an ordinary bowl with partial alterations, including a long octagonal foot and an upper rim spreading out into a flat octagonal lip. The sides of the foot are punctured in two alternating shapes. The white clay body is spotless and covered in a translucent glaze with a hint of blue.

059

백자투각불수감문필통
白磁透刻佛手柑文筆筒

White Porcelain Brush Holder with Openwork Buddha's Hand Citron Design

조선 19세기 | 높이 11.6 입지름 10.0 밑지름 9.2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11.6 Md 10.0 Bd 9.2



필통이나 연적, 묵호墨壺, 필가 등의 문방구류는 18세기부터 많이 제작되었고 19세기에는 그 제작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 필통과 같은 원통형圓筒形의 필통에는 특히 투각透刻기법으로 장식한 것이 많은데 연꽃이나 모란꽃, 포도 등의 문양에 비해 불수감문양은 그 예가 드물다. 불수감佛手柑은 19세기 백자의 다양한 길상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소재로 이전에 없던 새롭게 등장한 문양이다. 불수감의 ‘불佛’은 중국어 발음이 ‘복福’과 같아 길상문으로 사랑을 받아 특히 청화백자의 문양으로 많이 장식되었다.

등근 몸통을 휘감고 도는 가지를 따라 불수감을 세 개, 두 개, 한 개씩 다양한 모습으로 배치하고 불수감의 세부와 잎맥은 음각 기법으로 묘사했다. 잡티가 없는 깨끗한 백토에 눈 위에 내려앉은 차가운 달빛을 연상시키는 맑은 유약을 입혔다. 굵은 안쪽으로 꺾었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The large-scale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stationary began in the 18th century and increased remarkably in the 19th century. While cylindrical brush holders at the time were often decorated with an openwork design, the Buddha's hand citron (佛手柑) on this brush holder was a relatively new addition to the wide variety of auspicious symbols used to decorate white porcelain in the 19th century. The design became popular because the character “佛 (Buddha)” is homophonous to “福 (fortune)” in the Chinese language. A translucent glaze covering the unpainted white clay reminds of the cold moonlight shining over white snow.





060

백자철화문무관명기 白磁鐵畫文武官明器

White Porcelain Burial Figurines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조선 16 ~ 17세기 | 左 높이 13.4 | 右 높이 13.0

Joseon Dynasty (16th - 17th Century) | **Left** H 13.4 | **Right** H 13.0



문관文官과 무관武官 한 쌍의 인물형 명기이다. 두 점 모두 손을 모아 홀笏을 쥐고 있는데 문관의 홀은 짧고 가슴에서 떨어져 있으며, 무관의 홀은 길고 가슴에 붙어 있다. 문관은 벼슬아치가 깃이 둥근 관복인 단령團令을 입을 때 쓰는 검은색의 오사모烏紗帽를 썼고, 무관은 정수리가 봉긋한 투구를 썼다. 오사모와 두 인물의 눈동자는 철사안료로 검게 표현하였다. 얼굴은 눈이 둥그랗고 코가 높아 이국적인데 문관은 코끝이 오므라든 매부리코이고, 무관의 코끝은 뽕족하게 섰다. 두 점 모두 몸통 안쪽이 비어 있고, 문관의 등에는 ‘官’자가 음각되었다. 태토는 잡물이 약간 섞인 회백색이고,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명기明器는 순장殉葬을 대체할 목적으로 죽은 자에게 산 자의 그릇을 쓰지 않고 예를 갖추기 위해 비롯되었다. 조선시대 15세기에 무덤에 부장된 명기는 병, 말, 접시, 편병 등 실제 생활에 쓰이는 그릇으로 대부분 분청사기이다. 16세기 이후에는 유교적 상장례 절차의 하나로 사대부계층이 작은 크기로 축소된 그릇모양의 백자명기와 인물형명기를 사용하였다. 인물형명기는 피장자와 주종관계에 있는 형상이 일반적이는데 이 두 점의 문관과 무관모양 명기는 이채롭다.

These burial figurines of a civil and a military official each holds a scepter with both hands, the civil official's shorter than the military official's. The civil official is portrayed with a black silk official hat, while the military official dons a conical helmet. Both pieces are hollow inside, and the back of the civil official is inscribed with the character “官 (government official).” Burial goods in Korea comprised miniature versions of persons or daily objects that made specifically to be placed inside the tomb to honor the deceased, in place of the ancient practice of burying living persons and actual objects to comfort the deceased in the afterlife. The literati class used white porcelain miniature vessels and figurines as burial good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백자철화인물형명기

白磁鐵畫人物形明器

White Porcelain Burial Figurines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조선 16~17세기 | 높이 5.3~6.3

Joseon Dynasty (16th - 17th Century) | H 5.3 - 6.3



무덤에 부장할 목적으로 만든 인물모양의 백자명기 다섯 점이다. 세 점은 머리에 상투를 튼 남자이고 두 점은 머리에 가채를 엮은 여자이다. 이목구비와 머리에 부분적으로 철사안료를 사용하여 세부를 표현하였고, 여자명기 한 점을 제외한 네 점은 두 손을 마주잡은 곳에 역시 철사안료로 동그란 점을 찍어 표현하였다. 몸체에는 옷의 윤곽을 음각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회백색의 태토에 맑고 투명한 유약을 입혔으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These five white porcelain figurines were placed inside a tomb with the deceased. The three pieces with a topknot on the crown are men, the two wearing an elaborate braided hairpiece for formal occasions are women. The facial features and hairstyles are expressed in detail with an iron-brown pigment, which was also used in marking, with a round dot, the spot where each figurine, except for one woman, has joined his or her own hands.

062

백자철화마형명기

白磁鐵畫馬形明器

Horse-Shaped White Porcelain Burial Object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조선 16~17세기 | 높이 9.6 길이 15.3 너비 5.4

Joseon Dynasty (16th - 17th Century) | H 9.6 L 15.3 W 5.4



조선시대 16~17세기에 무덤에 부장할 목적으로 만든 명기의 형태는 일상용의 그릇을 축소한 그릇모양 명기와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상형명기가 있다. 이 말뼉모양의 명기는 나귀에 가까운 형태인데 상형명기 중에서도 크기가 큰 편이다. 하나의 백토덩 어리를 조각하여 만들었는데 눈과 입, 이마에 찍힌 갈색점은 철사안료를 사용하였다. 등에는 도드라진 안장이 있고, 여러 갈래의 말 갓춤새는 음각선으로 표현하였다. 회색빛이 감도는 태토에 맑고 투명한 유약을 입혔다.

This horse-shaped burial item dates back to the 16th or 17th century. In appearance, this figurine is closer to a donkey than a horse, and its size is larger than most burial figurines. The whole piece was sculpted from a single clod of white clay, and the brown dots marking the eyes, the mouth, and the forehead were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The saddle on its back and other horse equipment are expressed with incised lines.

백자철화용문호 白磁鐵畫龍文壺

White Porcelain Jar with Cloud and Dragon Pattern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조선 17세기 후반 ~ 18세기 전반 | 높이 38.4 입지름 20.6 밑지름 15.0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112호

Joseon Dynasty (Late 17th Century - Early 18th Century) | H 38.4 Md 20.6 Bd 15.0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12 of Busan Metropolitan City

조선시대 백자항아리는 몸통의 생김새에 따라 입호立壺와 원호圓壺로 구분되는데, 이 항아리는 몸통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형태가 대칭을 이룬 둥근 원호이다. 특히 높이가 40cm 내외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는 몸통의 상부와 하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는데, 이 항아리 역시 커다란 발軋 두 개를 구연끼리 맞붙이는 방식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몸통 가운데가 둥글지 않고, 칼로 깎은 구연은 모가 나서 강하고 담박한 느낌을 준다. 문양은 몸통 상부에 항아리를 휘감은 용龍과 풀처럼 보이는 구름을 중속문양이 없이 철화鐵畫로 그렸다. 과감한 생략과 변형으로 해체된 용의 얼굴과 더듬이처럼 표현된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을 표현한 빠른 필치는 자연스럽게 일그러진 항아리의 형태와 함께 정지한 청화백자와는 다른 과격을 느끼게 한다.

철화백자는 붉은 색이나 흑갈색을 띠는 산화철 성분이 포함된 안료로 문양을 그린 것으로 철화鐵繪 또는 철사鐵砂백자라고도 한다. 백자에 철화안료를 사용한 것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나 청화백자와 같이 백자의 문양을 표현하는 주된 안료로 사용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그 주된 원인은 중국을 통해 조달하던 청화안료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1634년에 이르러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는데 철화안료石間朱를 사용한 기록이 인조仁祖 12년 5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있다. 당시 왕실용 백자는 경기도 광주 일대에 설치된 관요官窯에서 제작하였으며 용과 같은 문양은 도화서의 화원畫員이 그렸다. 그러나 이 항아리의 해체된 용의 모습과 거침없는 필치는 장인匠人の 그림임을 짐작하게 하며 그 제작지 또한 관요의 주변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This spherical jar with near horizontal symmetry was made from separate lumps of clay for the top half and the bottom, which were later joined, so that the body flattens in the middle. The rim of the mouth is sharp as if formed with a knife, expressing a simple yet strong spirit. A dragon is painted in iron-brown around the center along with a sprinkle of clouds stylized into curvy asterisks. The depiction of the dragon—its face rendered abstract through bold omission or deformation, and the flames bursting from its mouth expressed with swift brushstrokes to resemble feelers—along with the natural distortion of the jar's shape, is a breakaway from the standardized style.





구연부



저부

064

백자철화초문병
白磁鐵畫草文瓶

White Porcelain Bottle with Plant Design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조선 17~18세기 | 높이 24.5 입지름 7.0 밑지름 7.0

Joseon Dynasty (17th - 18th Century) | H 24.5 Md 7.0 Bd 7.0



‘소박하다’는 정감어린 표현은 이 병에 잘 어울린다. 목이 짧지만 몸통이 가름하고 날씬하여 전체 모습이 둔중하지 않다. 잡티가 섞인 회색빛 태토가 베어나는 얇은 유약은 마치 물에 젖은 것처럼 보인다. 몸통 양쪽에 더없이 간결한 풀줄기草文를 철화로 그렸는데, 칠사안료의 발색이 붉고 선명하여 단풍잎과 같다. 굽은 거의 짝지 않아 편평하고, 모래를 받쳐서 구웠다. 엄선된 원료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관요에서 만든 백자와는 달리 가능한 여건 안에서 순응한 지방가마에서 만든 백자의 담백한 미감을 주는 백자병으로 이 병과 같은 철화백자는 17~18세기에 걸쳐 지방의 여러 가마에서 제작되었다.

An exemplar of a plain and minimalist aesthetic, this bottle, despite its short neck, has an elongated shoulder that droops at an acute angle, resulting in a delicate, slender physique. The thin coat of translucent glaze reveals every detail of the gray clay underneath, including the impurities, and makes the bottle glisten as if it were wet. The body is decorated at opposing points with a simple design of a dark red three-leaved plant reminiscent of maple leaves and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백자동화일월연운문호
白磁銅畫日月燕雲文壺

White Porcelain Jar with Sun, Moon, Swallow and Cloud Pattern Painted in Underglaze Copper-Red

조선 18세기 | 높이 20.1 입지름 14.3 밑지름 11.2

Joseon Dynasty (18th Century) | H 20.1 Md 14.3 Bd 11.2



몸통이 둥근 항아리로 낮은 목에 구연은 끝이 도톰하게 말렸다. 굽다리는 직립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몸통의 네 곳에 둥근 원 두 개가 겹쳐진 형태의 일월^{明月}을 그렸는데 해와 달 안에는 새가 한 마리씩 날고 있다. 목둘레에 한 줄 선을 두르고 그 선에 접하여 이 항아리와 같은 시기에 만든 청화백자 용준^{龍樽}의 종속문으로 많이 사용된 연관문^{蓮瓣文}을 변형된 형태로 역시 네 곳에 그렸다. 문양을 그린 안료는 산화동^{酸化銅}이다. 산화동인 진사의 발색은 부분적으로 어두운 붉은색과 녹색색이고 문양의 일부는 희미하다. 이것은 온도에 민감하여 휘발성이 강하고, 번조할 때 가마 안의 불 분위기에 따라 붉은 색과 녹색을 띠는 진사의 특성 때문이다. 문양인 일월은 오행^{五行}의 기본요소로 음양^{陰陽}을 상징한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한대^{漢代} 이후 각종 공예품에 일월상문을 표현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벼루 등의 공예품에 장생문^{長生文}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일월문 안에 날고 있는 새는 금조^{金鳥}·금계^{金鷄}·적조^{赤鳥} 등으로 표현된 천계^天 鷄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구름 가운데 날고 있는 제비^燕로 해석되기도 한다.

도자기에 문양을 그리는 안료로 산화동을 사용하여 진사^{辰砂} 또는 동화^{銅畫}자기를 만든 것은 고려시대인 13세기부터 비롯되어 14세기까지 상감청자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진사자기의 예가 확인되지 않고,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들어서 〈박증구묘지^{朴曾求墓誌}〉 및 〈박증구처전의이씨묘지^{朴曾求妻全義李氏墓誌}〉(1680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비롯한 접시형 묘지에 지문^{誌文}을 산화동으로 쓴 예들이 여러 점 있다. 문양을 진사로 그린 동화백자의 본격적인 제작은 18세기에 들어서 인데 18세기 후반에는 진사 한 가지로만 장식한 자기가, 19세기에는 진사와 철사, 청화를 혼용한 자기가 분원^{分院}에서 제작되었다.

This jar has a spherical body decorated at four equidistant points around its center with a design of the sun and the moon in the shape of two overlapping discs, and a bird flying within each disc. The decorations are painted with a copper oxide pigment that is sensitive to temperature, highly volatile, and produces different shades of red or green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firing within the kiln. The sun and moon design is also featured as a symbol of longevity for craftwork including inkstones in the late Joseon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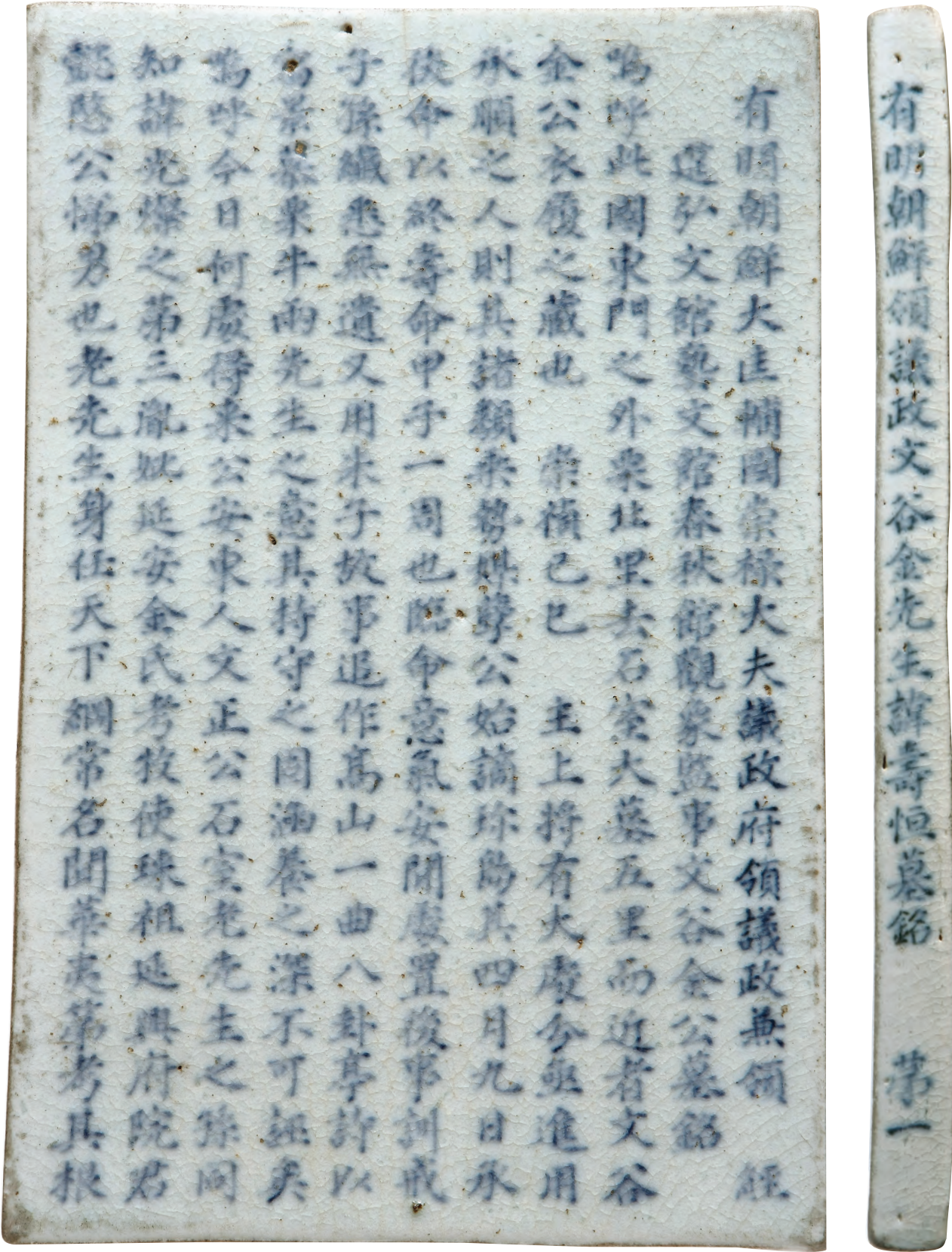
백자청화김수항묘지
白磁靑畫金壽恒墓誌
White Porcelain Tablets with Epitaph for Kim Su-hang Inscrib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699년 | 세로 21.0 가로 13.5
Joseon Dynasty (1699) | L 21.0 W 13.5

묘지는 돌石이나 자기磁器로 많이 만들고, 묘에 묻힌 사람인 묘주墓主의 가계와 이름, 벼슬과 행적 등 일생의 중요한 사실을 적은 묘지명墓誌銘을 쓴다. 이 백자묘지명은 조선 중기 때의 문신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 ~ 1689과 그의 아내 나씨羅氏에 관한 것이다. 장방형 백자판 아홉 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글자는 청화안료를 사용해 단정한 해서체로 썼다. 제1장 ~ 7장은 김수항에 관한 것으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지었고, 제8장 ~ 9장은 부인 羅氏에 관한 것으로 아들 김창집金昌集이 찬술하였다. 매 장마다 오른쪽 측면에 ‘유명조선영의정문곡김선생휘수항묘명有明朝鮮領議政文谷金先生諱壽恒墓銘’이라고 적어 주인을 밝혔고, 제1장 ~ 7장까지는 왼쪽 측면에 ‘우암송시열 찬尤庵宋公時烈 撰’이라고 적어 묘지문을 쓴 사람을 밝혔으며, 매 장마다 왼쪽 측면 아래에 ‘共九’를 적어 묘지가 모두 아홉 장임을 표기하였다. 또 아홉 번째 장 마지막 줄에는 ‘충정기원칠십이년유월 일번조崇禎紀元七十二年六月 日 燔造’라고 적어 이 백자묘지가 김수항이 사망한 지 십년이 지난 1699년 6월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수항의 본관은 안동安東인데 그의 조부는 절의로 이름이 높은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이고, 부친은 동지중추부사 감광찬金光燦이다. 그는 육조의 판서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거쳤으며,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가장 아끼던 후배였다. 1689년숙종 15에 있었던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으며, 1694년숙종 20에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노론이 다시 정국을 장악하자 복관되었다. 김수항의 묘지는 이러한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복관된 해인 ‘崇禎紀元六十八年八月日’에 먼저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송자대전宋子大全』 권 182에 실려있다. 이 청화백자묘지는 김수항이 죽은 해로부터 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작한 것으로 묘지명의 내용은 『송자대전』에 실린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청화의 발색이 매 장마다 차이가 있고, 태토는 밝은 회색이다. 바닥면에 유약을 닦아내고 길다란 막대기 모양의 태토받침에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This set of white porcelain tablets contains the epitaphs for Kim Su-hang (pen name: Mungok; 1629 - 1689), a civil official of the mid-Joseon, and his wife from the Na clan. On the right edge of each tablet is the inscription, “有明朝鮮領議政文谷金先生諱壽恒墓銘 (Epitaph for Mungok Kim Su-hang, renowned Chief State Councilor of Joseon),” stating the subject of the epitaph. On the left edge of each of the first seven tablets is the inscription, “尤庵宋公時烈 撰 (Written by Song Si-yeol, pen name Uam),” revealing the author of the epitaph. On the bottom of the left edge of each tablet is the inscription “共九 (nine in all),” indicating that the tablet is one in a set of nine. The last line of the inscription on the ninth tablet is “崇禎紀元七十二年六月日燔造 (Fired in the 6th lunar month of the 72nd year of Chongzhen Era),” stating that the tablets were made in 1699, ten years after the death of Kim Su-hang.



有明朝鮮大匡國公孫大義政府領議政兼領經
建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文谷金公墓銘
嗚呼此國東門之外東北里去石室大墓五里而近者文谷
金公之履之藏也 崇禎己巳 主上特有大慶令亟進用
承順之人則其諸親族勢將驟公始謫瑯琊其四月九日承
命以終壽命申子一司也既命意氣安閑處置後事訓戒
子孫無遺又用朱子故事追作高山一曲八卦亭詩以
寓景慕朱兩先生之意其持守之固涵養之深不可誣矣
嗚呼今日何處得來公安東人文正公石室先生之孫同
知諱光燦之第三胤延安金氏考授使球祖延興府院君
懿愍公嫡男也老先生身任天下綱常名聞華夷第考其根

基則文公小學也文公論真正大英雄必以戰兢臨履為言
者蓋驗焉公受家庭學景主於小學敬身一篇老先生在安
東書齋九容四勿以勉之其所期待深且遠矣公自少終日
危坐未嘗箕踞肩背疎直不少波倚以為外面有些疎隙則
心志從而走失文辭典雅務去靡麗老先生嘗識之曰有用
之文也十七歲試泮宮大舉士澤堂李公取置上將曰可以
變近世文體也明年魁司馬試間數年不就場屋留意性理
諸書以自培養二十三歲 賜聖文科第一朝廷賞得人焉
二十八中重試陞進士三十一歲三十四歲奉憲卒玄陸崇
政士子拜右議政時年四十四其間所履歷無非極選始為
臺諫論事忤 旨及後建議 恩顧日隆其主文衡也時論

翕然爭相連肖以故至於本相而仍無不遵崇拜吏判登明
選公人不散譽議其為相自以為無經濟才古大臣事業固
不敢望而至於晚近為宰相者君德闕失不以為己責而一
付之臺閣此非輔弼匡救之義故專以是自任焉 顯廟專
任許積然察公貞亮可屬大事故賓禮之禮之後仲氏及諸
官多被譴罰而公旋拜左相至於 顧命之際所以勉諭慰
安者極其丁寧今 上初服禮貌愈隆及賊儲肆兇陰附亂
宗輒為不遜語侵及 東朝公以為此關 國家倫紀不可
不為 上言之以冀開悟遂極論儲宇遠嗣基等誣悖狀摩
憾增起反以公為離間 兩宮而遠謫南荒始 明聖王后
夜與 上同御便殿燕簾引積痛哭而歷舉積擅等奸亂宮

人自 先朝兩嘗駭服者反覆教諭曰曰子欲開口不食而
死此出於至誠惻怛而終無一人出而謝罪者反以積來不
貳過之說為搖撼 慈聖之計其心可謂路人而不知也庚申
積排擊廷昌謀逆事覺其黨謀逆而積則 上特命誅
之以流其指子時公自謫所膺 命主繼事乎反及如元
積赫然為諸賊援引則公以清節未嘗稍放縱矣及後復
出賊撫事益狼藉雖欲救解而不可得矣蓋是時 明聖
母為言金相索獄明允無少濫枉可尚也已於奸兇既誅
賢豪征以公為領袖 上亦尊禮優異公亦鞠躬盡瘁
精會神以成元祐小康之治而時議遽已掣肘矣蓋誅除之
功實出士類中戚昵而浮薄喜事之輩務以深詆峻攻為功

公以為彼有安社稷之功姑無顯然罪過唐以排擠為不韙
少輩恨公不與己同始不快於公矣昔宋相趙汝愚紹熙廢
置實有名實達順之勢故朱夫子以為大變而然其捨死生
安宗社為不世之功故承命入朝誠心協同共獎王室況今
勳戚以忠討逆非趙公所遭之比然則今之議公者自謂賢
於朱子耶及璽璽之獄言者持金蓋勳急至致致疑於獄
情公以為璽璽逆節本無可輕蓋勳詞察實有所受今以發
告之不審遂疑此獄為無實而欲深罪蓋勳則不可於是時
議蓋諱然遂並攻與公同意者幾將垂取以至尼尹之爭而
極矣蓋賊儲始與退栗牛三先生而轉斥朱子遂至於不諱
孔聖其實斯文之亂賊而尼尹挺身黨助時亦陽擠陰進惡

不自量而痛詆之公於余才弱敵強時有警教之言時輩之
不悅於公於是尤甚公受教於老先生以為機關籠絡心術
之不正調停彼此事為之深害蓋余嘗曰宋元憲之籠絡
吾所不能建中之調停致亂之道公之末法淵源本末如此
故常以司馬公天若孫宋必無此輩為心而以范忠宣陰為
他日自全之計為戒此其所以動與時議相背而特被奸黨
所仇嫉者也夫朱子聖人也公從朱子道而不獲其利豈朱
子之道非耶公長身秀眉目風度挺遠每朝會垂紳搢笏張
拱儼立廷中歲日屬以為人中之鸞鵲鷹使亦起敬稱贊云
推此以言則家庭孝敬之為闔門倫理之正人亦可以無間
焉嗚呼劉梁之死天下悲之呂蔡之禍至今冤訟然知當時

用事者何如人則諸公之死榮也非辱也况今 宣母被誣
聖如慶辱兩賢見黜於聖廟公以此時死之顧不亦榮乎老
先生嘗以詩贈我勉以朱子之學余亦竊觀其自為者要不
出此矣以故老先生諸孫皆喜朱子書而公尤服膺余嘗安
編大全割裂而就正焉則公樂與之捃訂斟酌而與類纂焉
公之所學據此可見矣朱子臨嘗授諸生真訣曰天地之生
萬物聖人之應萬事直而已矣翌日又曰道理只是如此但
當堅固刻苦此豈非孔孟人生直以直養之正法耶公之一
生言行無所屈曲而五者其有得於此耶其有得於此歟銘
曰 死有惡時亦有榮時嗟公之時吾不敢知之
崇禎紀元後六十二年己巳六月恩津宋時烈撰

夫人安定羅氏牧使呈斗之女生六男一女男男集江華
府留守昌協參判昌翁昌業俱進士昌麟生貢昌立早溪
女適李涉亦早溪昌集二男濟謙好謙二女長閔啓謙昌
協一男崇謙五女長徐宗愈次李台鎮具晉昌翁三男
養謙致謙學謙二女長尹世亮昌業三男利謙身謙季承
名一女趙文命昌麟一女李望之昌立無子子學謙一女
李彥臣
石苑齋宋文正公所撰先府君墓表始府君方遠徇而先
生亦自脫羅被還遼海不肖孫等念此老不孝則先人不
朽之祀更無所望於是至具書為行錄一通除墓外弟李
湛往候中路乘間密圖然是時楊鶴益意疑駭環匪譏呵

嚴密實未易得聞以為只得數行語足矣而亦未敢幾焉
矣既而季弟以是文至則府君平生行實始略備而又
系以銘焉蓋文成於羅州之日而銘則作於長城之夜矣
嗚呼非先生志氣剛大特養深固則安能於大命將殲之
日而從容出此文於微纒間哉斯誠古今之所希有而抑
幽明莫大之幸也洵令世道更新幽枉昭雪宜以是刻之
墓前揭示於人人而顧其中尚有一二語可諱者誠不能
無過計之憂俟異日徐為之圖始先燒燬其妃匹子
姓本文不載故並追錄于其下不肖孤昌集謹識
崇禎紀元七十二年六月 日燾造

백자청화산수문편병
白磁靑畵山水文扁瓶

White Porcelain Flask with Landscape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8세기 후반 ~ 19세기 전반 | 높이 29.2 입지름 5.3 밑지름 16.2×6.1
Joseon Dynasty (Late 18th Century - Early 19th Century) | H 29.2 Md 5.3 Bd 16.2 × 6.1

몸통의 앞뒤가 볼록렌즈처럼 볼록한 편병이다. 구연 가장자리는 도톰한 옥연玉緣이고, 어깨 양쪽에는 얼굴을 치켜 든 다람쥐 모양의 설치류를 붙였다. 밖으로 곧게 벌어진 굽다리는 모서리의 각角를 면面으로 만들어 전체가 팔각八角인데, 양쪽 측면에는 구멍을 뚫었다. 목둘레, 몸통 가장자리, 굽다리 아래쪽에 청화선으로 테두리를 둘렀다. 양쪽 어깨에는 목에 잇대어 청화백자 용운龍樽에 종속문으로 등장하는 연판문을 장식성이 강한 변형된 형태로 그렸다. 몸통 양쪽에는 회화의 소재인 소상팔경瀟湘八景의 동정추월洞庭秋月과 산시청람山市晴嵐을 청화로 그렸다. ‘소상팔경’은 중국 호남성 동정호의 남쪽 소수瀟水와 상수湘水가 합쳐지는 곳의 늦가을 경치 여덟 가지이다.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는 이 여덟 가지 경치를 그린 것으로 조선에서는 관념산수의 하나로 많이 그려졌으며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청화백자의 주제 문양으로 등장하였다. 굽다리 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으며, 구연 일부는 수리·복원되었다.

This flask is in the shape of a flat cylinder mounted on its side, the two discs slightly bulging at the centers. Each shoulder is decorated with a squirrel figurine looking up to the sky. The foot has eight sides, and each of the sides immediately below the squirrels is punctured with a hole. Two landscapes from a reoccurring set of paintings under the theme of the Eight Views of Xiao Xiang-“Autumn Moon over Lake Dongting” and “Mountain Village in Clearing Mist”-are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on the bulging discs. The Eight Views of Xiao Xiang refers to the eight landscapes of an area called Xiao Xiang, south of Dongting Lake in Hunan Province, China, where the Xiao River joins the Xiang River. The theme appeared as the main design of blue-and-white porcelain in the 18th century.





구연부



저부



068

백자청화매죽문팔각병
白磁靑畫梅竹文八角瓶

Octagonal White Porcelain Bottle with Plum Blossoms and Bamboo Design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8세기 | 높이 20.1 입지름 3.6 밑지름 6.9

Joseon Dynasty (18th Century) | H 20.1 Md 3.6 Bd 6.9



구연을 뺀 몸통 전체가 팔각八角인 병이다. 이 병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굽 안쪽이 둥글고 바깥 모양은 팔각이어서 먼저 둥근 몸통을 만들고 바닥에서 목까지 모깍기를 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영조·정조연간에 많이 만들어진 백자각병 중에 이 병과 같이 굽이 안쪽으로 숨어 있는 예는 드물다. 몸통 아래쪽에 한 줄의 선을 그어서 지면地面을 표시한 후 한쪽에는 풀 처럼 보이는 대나무를, 다른 한쪽에는 복숭아꽃처럼 보이기도 하는 매화문을 청화靑畫로 그렸다. 18세기 청화백자의 문양 중에는 매죽梅竹이 함께 그려지는 예가 많아 이 병의 문양도 매화로 보는 것이 맞겠다. 문양을 그린 필치는 소박하다. 번조온도가 조금 낮아 유약이 제대로 녹지 않아 각진 모서리의 유약층이 일부 벗겨졌고, 청화의 발색은 어둡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번조하였다. 목 윗부분이 보수되었으나 일반적인 백자각병의 비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아쉽다.

This bottle has an octagonal cross-section from foot to neck, with the exception of the circular lip. Judging from the circular rim concealed within the octagonal foot, a common cylindrical bottle was sculpted first, and the angles were added afterward while the clay was still soft. That this particular bottle has a concealed inward foot makes it a rare example of angular white porcelain bottle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Painted in cobalt-blue pigment is a horizontal baseline representing the earth from which emerge two types of trees: bamboos that look more like reeds on one half and plum tree in blossom on the other. Despite efforts to repair the upper part, this bottle regrettably marks a departure from other angular white porcelain bottles in terms of structural balance.

백자청화시명병 白磁靑畵詩銘瓶

White Porcelain Bottle with a Poem Inscrib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9세기 | 높이 25.1 입지름 4.2 밑지름 12.4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25.1 Md 4.2 Bd 12.4

백자에 시표를 쓴 것은 조선시대 내내 지속된 것으로 15~16세기에는 산화코발트를 안료로, 17세기에는 산화철을, 그리고 18~19세기에는 두 가지 안료를 혼용하기도 하였으나 푸른색의 청화로 시를 쓴 백자가 유행하였다. 이들 문인취향의 시가 있는 백자들은 자기에 그림을 담당한 도화서圖書署 화원畵員들과 그릇을 주문한 사대부들이 분원을 방문하여 직접 쓴 것으로 짐작된다. 이 병은 아래로 처진 몸통을 청화선 한 줄을 두른 낮은 굽다리가 받치고 있고 유려하게 뺀 목에 구연은 도톰하게 말렸다. 잡티가 없는 깨끗한 백자에 푸른색이 감도는 맑은 유약을 시유했다. 몸통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며 칠언고시七言古詩를 네 글자, 세 글자씩 번갈아 가며 썼는데, 필체가 유려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三年銘鏤戒常存	삼년동안 가슴에 새기어 경계함이 항상 존재하여
縱對黃花不對樽	비록 노란 국화꽃을 대하여도 술동이를 마주하지 않네.
宮醞特宣西省月	숙직을 서는 달밤에 궁온을 특별히 내려주시니
此身醒醉揔君恩	이 몸 술 깨고 취함이 모두 임금님의 은혜로다.

이 시는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권3에 1673년현종 14 문과에 급제하여 숙종肅宗 때 대제학과 병조판서를 지낸 문신 오도일吳道一, 1645~1703편에 실려 있다. 원문에는 세 번째 구절이 ‘宮醞忽宣’이지만 이 병에는 ‘宮醞特宣’으로 적었다. 오도일은 본관이 해주海州이고, 자는 관지貫之이며, 호는 서파西坡로, 영의정을 지낸 오윤겸吳允謙의 손자이다. 그는 특히 문장에 매우 뛰어났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숙종이 그의 과음을 경계한 일이 있다. 『숙종실록肅宗實錄』 28권 21년1695 1월 28일의 기사는 강원도 관찰사로 떠나는 그에게 숙종이 시표를 하사한 일을 전하고 있다. 오도일은 1702년 민언량閔彦良의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지인 장성長城에서 59세에 죽었다. 『숙종실록』 38권 1703년 2월 14일의 기사는 ‘오도일이 유배지에 있으면서 방탕하고 쾌락하여 사람의 도리를 잃었는데 술로써 마음을 풀고 취하면 짐승과 같았다’라고 적고 있어서 일찍이 그에게 술을 경계한 임금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백자병은 그의 사후 백여 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숙종과 오도일 사이에 있었던 군신君臣간의 아름다운 일을 기리고, 이를 지키지 못하여 명문가의 후손이었으나 끝내 평판이 좋지 않았던 오도일의 후손들이 이를 경계하기 위해 분원에 주문 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White porcelain vessels inscribed with poems appealed to the tastes of the literati. Poems on these vessels are thought to have been written by court painters of the Royal Bureau of Painting, who painted vessels at the kilns, or the literati-class commissioners, who would visit the kilns to write the poems personally. The poem on this jar is read from right-to-left, top-to-bottom.

三年銘鏤戒常存	For three years, I have followed His Majesty’s advice to refrain from liquor
縱對黃花不對樽	Not even the yellow chrysanthemum can tempt me into drinking
宮醞特宣西省月	His Majesty then granted me a drink while I was on duty in the moonlight
此身醒醉揔君恩	Either drunk or sober, it is all thanks to the generosity of His Majesty

The author of this poem O Do-il^{1645 - 1703} had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1673 (14th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and served as the Minister of War under King Sukjong’s rule^{1674 - 1720}. O Do-il was an excellent writer, but he was also an excessive drinker, causing Sukjong to advise him to refrain from liquor. *The Annals of King Sukjong* contains an anecdote about the king presenting a poem to O Do-il, who would soon be leaving for Gangwon-do Province to serve as governor (volume 28, 28th day of the 1st lunar month of the 21st year of King Sukjong’s reign). O Do-il died in 1702 while in exile at the age of 59. This bottle was produced about a century after the death of O Do-il, presumably to commemorate the ca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a loyal subject.



백자청화운학송죽문병
白磁靑畫雲鶴松竹文瓶

White Porcelain with Cloud, Crane, Pine Tree and Bamboo Design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9세기 | 높이 25.8 입지름 4.8 밑지름 10.6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25.8 Md 4.8 Bd 10.6



낮은 굽이 받치고 있는 몸통이 아래로 처져 평퍼짐한데도 목이 시원하게 쭉 뻗어 전체 모습은 늘씬하다. 깨끗한 백색의 태토에 유색이 맑아 보는 맛이 개운한 백자병이다. 낮은 굽다리 둘레에 한 줄의 청화선靑畫線을 긋고 몸통에는 늙은 소나무老松, 학과 구름, 대나무, 바위, 영지 등의 장생문長生文을 청화로 그렸다. 청화의 농담이 다양하고 여러 문양 표현 중에 소나무의 섬세한 묘사와 대나무의 유려한 필력이 돋보인다. 이 병의 다양한 문양 소재와 섬세한 표현은 기복적祈福的인 성격이 강한 조선시대 후기 민화와 상통하는 길상적인 요소이다. 굽은 안쪽을 깊게 깎았고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낸 후 고운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Despite the sagging voluminous body, the straight, elongated neck renders this bottle slender in overall impression. The white of the clay seems to glow under the thin coat of translucent glaze. Using cobalt-blue pigment, the body is adorned with symbols of longevity including old pine trees, cranes and clouds, bamboos, rocks, and divine mushrooms. The cobalt-blue pigment is applied to all symbols in subtle gradations, but the pine trees and the bamboos are rendered in meticulous detail and with great finesse.



백자청화연화문병
白磁靑畵蓮花文瓶

White Porcelain Bottle with Lotus Blossoms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9세기 | 높이 25.7 입지름 4.6 밑지름 12.5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25.7 Md 4.6 Bd 12.5



곧게 뻗은 병목에 구연 끝이 살짝 바라져 시각적인 반전이 있다. 아래로 묵직하게 내려앉은 몸통과 넓고 낮은 굽은 19세기 분원分院에서 만든 백자병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몸통 양쪽에 연잎과 연꽃, 연밥을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으로 그렸는데 연꽃의 물을 장식성이 강한 영지형靈芝形으로 표현한 점이 독특하다. 연꽃 사이로는 부리가 길어 백로로 보이는 새가 날아들고 있는데 풍성하게 묘사한 연꽃 무리의 가장 높은 곳에 솟아 있는 연밥과 함께 이 문양이 〈연로도蓮鷺圖〉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회화에 서 백로 한 마리와 연밥을 그린 일로연과一鷺蓮葉는 ‘한 번에 연달아 과거에 합격을 한다’는 일로연과一路連科와 한자음이 동일하여 길상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 병의 문양은 장식성이 강한 길상문吉祥文이 풍미한 19세기 조선백자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안쪽을 깊게 깎은 굽다리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번조하였다.

This bottle has a straight, elongated neck and an unconventional lip at its end that flares slightly. The sagging voluminous body and short foot are characteristic of white porcelain bottles made at the kilns controlled by the Royal Food Office in the 19th century. On opposite sides on the body are two images of lotus blossoms and pips on drooping stems and leaves emerging from a pond, which is rendered in a highly ornamental style of folk painting. This bottle is a typical example of 19th century Joseon white porcelain that was often decorated with auspicious patterns.



백자청화국화보상화문육각병
白磁靑畫菊花寶相華文六角瓶

Hexagonal White Porcelain Bottle with Chrysanthemum and Floral Medallion Motifs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9세기 | 높이 22.0 입지름 4.9 밑지름 10.5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22.0 Md 4.9 Bd 10.5



구연부터 목, 몸통, 굽에 이르기까지 전체 형태가 육각六角인 병이다. 몸통은 양감이 크고 목은 세장한데 목과 몸통을 따로 만든 후 접합하였다. 육각의 몸통 각 면에는 국화절지문과 보상화문을 번갈아 배치하였는데, 청화의 발색이 국화는 옅고 보상화문은 짙어 대조적이다. 구연부에는 기하학적인 문양대를, 목과 만나는 어깨에는 여의두문을, 굽 둘레에는 한 줄의 청화선을 돌렸다. 조선 고유의 미감이 드러난 18세기 백자와는 다른 이 병의 장식성이 강한 특징은 19세기 조선백자에 투영된 중국 청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외래문화의 영향이다.

This bottle has a hexagonal cross section from top to bottom. The body abruptly protrudes from the slim elongated neck with great volume. Separate lumps of clay were sculpted into the neck, body and base, and put together afterward. The six sides of the body are decorated with alternating designs of chrysanthemums and Buddhist floral medallions, providing a stark contrast between the pale chrysanthemums and dark floral medallion motifs with varying shades of cobalt-blue. The highly ornamental characteristic of this bottle reflects the influence of foreign cultures of the Qing Dynasty and Japan on Joseon white porcelain in the 19th century.



백자청화장생문주자
白磁靑畵長生文注子

White Porcelain Ewer with Symbols of Longevity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9세기 | 높이 17.1 입지름 7.4 밑지름 9.0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17.1 Md 7.4 Bd 9.0



공처럼 둥근 몸통에 대나무모양의 손잡이가 인상적인 주자이다. 손잡이의 형태는 아래쪽은 곡면이고 위쪽에만 마디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때 잡기에 편리하도록 고안하였다. 뚜껑에는 꼭지 양쪽에 영지초靈芝草를 그렸고, 몸통의 구연 가장자리에는 뇌대雷文을 띠처럼 둘렀다. 몸통에는 영지를 사이에 두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슴을 한 마리씩 청화로 그렸다. 사슴은 19세기에 유행한 장생문의 한 요소이고 한자음 ‘鹿’이 ‘祿’과 같아 여러 가지 공예품에 문양으로 등장하였다. 19세기에는 상품경제의 발달과 수요층의 확대에 힘입어 분원백자에 복잡한 형태의 다양한 기종이 출현하였다. 이 주자 역시 장식성이 강한 형태에 상징적인 길상문양을 그린 전형적인 19세기 청화백자이다. 깨끗한 백색의 태도에 맑고 투명한 유약을 시유하였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안쪽을 깊게 깎은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This impressive ewer is round with a bamboo-shaped handle. The protruding bamboo joints exist only on the top of the handle, while the underside is smooth, making it easier to grip. A pair of deer painted on each side of the body was a popular symbol of longevity in the 19th century. Since the character for deer “鹿” is a homophone of the character for government salary “祿,” deer was painted on a wide range of craftwork. The highly decorative nature of this ewer with symbolic designs is typical to 19th-century blue-and-white porcelain.



074

백자청화화조문호
白磁靑畵花鳥文壺

White Porcelain Jar with Bird and Flower Design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8세기 후반 | 높이 36.7 입지름 15.0 밑지름 15.4
Joseon Dynasty (Late 18th Century) | H 36.7 Md 15.0 Bd 15.4



넓은 어깨가 의젓한 백자항아리다. 목은 직립하였고, 몸통의 아래쪽은 완만하게 좁아져서 전체 모습이 안정감이 있다. 부드럽게 뻗어나간 가지에 꽃이 활짝 피었고 그 꽃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새가 앉아 있다. 목둘레와 몸통 아래쪽에는 변형된 모양의 여의두문을 띠처럼 둘렀다. 청화안료의 발색은 흐리고 어둡지만 은은한 백토의 색감과 많은 여백으로 차분하고 단아한 느낌을 준다. 굽은 안쪽으로만 깊게 깎았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This elegant white porcelain jar has broad shoulders, a straight neck and a body that gently tapers toward the bottom. Two birds sit on the gentle twigs that stem from the flowers in full bloom. The cobalt-blue of the design is dim and dark, but the off-white color of the clay and the blank spaces add to the vessel an air of serenity and grace.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磁靑畵雲龍文壺

White Porcelain Jar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9세기 | 높이 45.4 입지름 16.9 밑지름 17.2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45.4 Md 16.9 Bd 17.2



‘용준龍樽’이라고 부르는 항아리로 조선시대 국가와 왕실의 중요한 행사에 꼭 갖추어야하는 의례기儀禮器이다. 목은 직립하였고, 몸통은 어깨가 팽만하여 당당하고 아래쪽이 잘록하다. 항아리의 몸통에는 몸에 비해 크게 그려진 얼굴을 중심으로 여의주를 잡아채려는 발가락이 네 개인 사조룡四爪龍을 그렸는데 배가 앞으로 많이 나온 과장된 자세이다. 얼굴은 세부묘사를 생략하고 청화로 채색을 하였다. 깨끗한 태토에 맑은 유약을 입혔으며 청화발색은 열어서 담백하다. 목둘레에 종속문으로 여의두문如意頭文을 들렀고, 아래쪽의 종속문이 생략된 바탕에 영지모양의 구름이 떠 있어 19세기의 백자항아리로 생각된다. 굽다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안쪽으로 깊게 깎은 안굽이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This ritual vessel, called *yongjun*, or dragon jar, was used in major state and royal court rites in the Joseon Dynasty. Painted in cobalt-blue around the vessel's mid-section are a pair of dragons with four claws on each leg, whose head is disproportionately larger than the rest of the body. The dragons are drawn in an exaggerated posture, heaving their chests in an attempt to catch the *cintamani*. The skin on the dragon's face is colored in cobalt-blue without any of the usual details.



백자청화수복자문발
白磁靑畫壽福字文鉢
White Porcelain Bowl Inscribed with Pattern of Characters “壽” and “福”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9세기 | 높이 10.4 입지름 22.3 밑지름 10.4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10.4 Md 22.3 Bd 10.4



19세기에는 대접 또는 발鉢이 반상기飯床器의 일부로 많이 제작되었다. 이 발은 측면에서 구연까지 곧게 벌어져 단정한 느낌을 주는데, 굽은 바깥쪽은 낮고 안쪽이 깊은 전형적인 19세기 분원백자의 형태이다. 내지면 가운데에는 도안화되어 문양으로 변한 ‘壽’자를, 외면에는 구연부와 굽 둘레에 청화선을 두르고 ‘壽’와 ‘福’을 교대로 삼단으로 장식했다. 글자의 크기는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작아졌다.

19세기 청화백자의 문양에는 복福을 구하는 길상문으로 특정한 사물 외에 글자를 문양처럼 써서 표현하는 문자문文字文이 많다. 수복강녕壽福康寧, 연년익수延年益壽, 다남자多男子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은 서체의 품격보다는 장식적인 공예의장에 중점을 두었다. 이 발은 이러한 19세기 백자의 특징을 잘 담고 있다. 태토에 잡물이 섞여 있고, 청화발색은 어두운 편이다. 유색은 맑은 푸른색으로 기품을 지니고 있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서 변조하였다.

This bowl boasts an elegantly slanted side silhouette from the middle of the body to the top rim. The foot seems shallow from the outside, but is deeper on the inside in the characteristic style of 19th-century white porcelain from the branch kilns of the Royal Food Office. At the bottom of the bowl is a stylized pattern of the character “壽 (longevity).” The surface between the cobalt-blue lines circling the mouth and the foot, is covered in a three-tiered alternating pattern comprised of the characters for longevity and fortune, “壽” and “福,” their sizes growing smaller toward the vessel’s foot.



백자청화매화산수문사각연적
白磁靑畫梅花山水文四角硯滴

Cuboid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with Plum Blossoms and Landscape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8세기 | 높이 5.8 가로 7.7 세로 7.8

Joseon Dynasty (18th Century) | H 5.8 W 7.7 L 7.8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거의 같은 육면체의 반듯한 연적이다. 입수구入水口는 윗면 중앙에, 출수구出水口는 윗면의 산수문 아래로 이어지는 옆면에 있다. 윗면과 옆면 가장자리마다 청화선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문양을 그렸다. 윗면에는 18세기 조선의 화단을 풍미하여 청화백자의 주제 문양으로 등장한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중 산시청람山市晴嵐과 동정추월洞庭秋月을 연상시키는 산수문을, 측면 네 곳에는 고목에서 돋아난 어린 가지와 막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를 그렸다. 유면에는 광택이 거의 없어 은은한데 이 점이 오히려 문양의 회화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연적은 문방구 중의 하나로 조선시대 문인 사대부에게 필수품이었다. 18세기에는 이러한 문방구에 대한 수요가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였고 당시 유행한 회화의 영향을 받아 산수山水와 사군자四君子가 백자의 문양으로 사랑받았다. 이 연적과 같은 백자연적 중에 윗면의 산수문이 동일하고 옆면에 난초가 그려진 백자연적의 존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적은 이러한 18세기 조선의 청아한 미감을 잘 드러난佳作이다. 출구수가 파손되어 보수된 것이 아쉽다. 편평한 바닥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번조하였다.

This water dropper in a shape close to a cube is filled with water through the hole at the top. The water is then dispensed through the hole at the side for grinding ink. A landscape is painted on the top surface, while the four sides are adorned with plum blossoms on young twigs that grow from an old branch. The subtle gleam of the glaze enhances the effect of the image as a painting rather than a decoration. This graceful masterpiece exemplifies the aesthetic values of 18th century Joseon.



백자청화해태형연적 白磁靑畫獬豸形硯滴

White Porcelain *Haetae*-Shaped Water Dropper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9세기 | 높이 7.8 길이 10.9 너비 7.0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7.8 L 10.9 W 7.0



눈동자와 윤곽을 코발트안료로 표현한 해태모양 백자연적이다. 백자로 만든 문방구는 19세기에 들어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장식성이 강해지는데 이 연적은 이러한 특징에 잘 부합한다. 상형연적은 백토덩어리를 동물의 모습으로 조각한 후 적절한 위치를 골라 자른 다음 속을 파내고 다시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해태는 한자로 ‘해치獬豸’라고 하며 모습은 사자와 비슷한데 머리 가운데에 뿔이 있다. 특히 성품이 충직하여 바르지 못한 사람을 빨로 받고, 옳지 않은 사람을 들이받는 정의를 지키는 동물로 믿어져서, 조선시대에는 대사헌의 흉배에 상징동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화제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神獸로 간주되어 궁궐 등의 건축물에 장식되기도 하였다. 이 연적은 해태의 형상과 역시 19세기에 연적으로 만들어진 사자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 정수리와 등 뒤쪽에 회오리모양의 털은 전형적인 해태의 모습이지만 턱 아래에 곧게 선 앞발의 표현은 사자모양과 비슷하여 연적에 표현된 전형적인 해태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깨끗한 백토에 푸른색이 감도는 맑은 유약을 입혔다.

The *haetae* is a mythical creature that resembles a lion but has a horn in the middle of its head. In the Joseon Dynasty, the Inspector General wore on his chest a *haetae*-embroidered insignia. This porcelain *haetae* has mane rendered in tiny whirls, a typical depiction of the creature, but this water dropper is unique in that the *haetae*'s forelegs are held straight below the jaw, making it appear more like a lion.



079

백자청화화조문‘郭永享用’명문진
白磁靑畫花鳥文‘郭永享用’銘文鎮

White Porcelain Paperweight with Bird & Flower Design and Inscription
“Gwak Yeong-hyang” Painted in Underglaze Cobalt-Blue

조선 19세기 | 높이 10.3 상단너비 5×5 하단너비 7.5×7.5 무게 741.7g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H 10.3 Uw 5×5 Lw 7.5 × 7.5 W 741.7g



위로 올라가면서 폭이 좁아진 사다리꼴의 육면체 백자로 몸통 중앙에는 윗면에서 아랫면까지 관통한 동그란 구멍이 있다. 높이 10.3cm, 윗면 가로와 세로의 폭이 5cm, 아랫면 가로와 세로의 폭이 7.5cm로 손으로 질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형태이다. 붓을 꽂는 필가筆架의 용도를 겸할 수 있는 문진文鑑이다. 윗면에는 청화로 ‘喜’자를 큼지막하게 쓰고, 측면에는 꽃과 새가 있는 화조문花鳥文과 오연절구 스무 자씩을 번갈아 배치하였다. 화조문은 19세기 민화와 자수刺繡에 표현된 것과 동일하다. 오연절구가 있는 두 면은 각각 상단에 ‘수복福壽’ 및 ‘쌍전雙全’을 횡서橫書로 쓰고 그 아래 종서縱書로 오연절구 네 줄씩을 썼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공부를 하느라 스스로를 경계하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등과登科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 글공부를 하는 내내 주변에 함께 있을 문방구에 사용자의 소망을 투영한 예인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굽다리 안쪽에는 이 문진의 주문자이자 사용자를 의미하는 ‘郭永享用’이라는 표기가 있어서 각별하다. 이는 19세기 후반 사번私鑄이 이루어지던 분원의 해이해진 운영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고운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This paperweight in the shape of a square frustum is small enough to fit in the hand. A round hole that penetrates the center of this stable device from top to bottom can be utilized to hold a brush. The top surface is filled with the character “喜 (joy),” while the four sides are decorated with an alternating arrangement of a bird-and-flower design and a quatrain with five characters in each line. The bird-and-flower designs are similar to those expressed in folk paintings and embroidery from the 19th century. The quatrains are about an exemplary young scholar exercising self-discipline to prepare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uggesting that this paperweight was made to bring its bearer success in his examinations. Interestingly, on the underside is inscribed “郭永享用 (For the use of Gwak Yeong-hyang),” revealing the commissioner and user of this white porcelain.





좌

福壽	時或披(被)人欺 分明我自知 若要忍奈得 終久有便宜	때에 혹 다른 이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 해도 분명히 내가 스스로 알아 만약 참을 인자를 얻는다면 마침내 편의가 있을 것이다.
----	-------------------------------------	--

우

双全	年紀雖然(年)少 文章日漸多 三杯須足田 一出乃登科	나이는 비록 어리나 문장은 날로 점점 늘어간다. 석잔 술이 모를지기 알맞으니 한 번 시험에 나아가 등과하는구나
----	-------------------------------------	--



좌측면



우측면